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 검증



목 차

1. 사전투표 득표율 63:36의 비밀(p8~11)
2. 두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비율의 일치(p12~14)
3.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p15~28)
보다 10% 높다?
 - 통합당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높은데?(p19)
4. 박영아 교수의 통계학적 실연 불가능 주장(p29~30)
5. 미베인 교수의 논문(p31~34)
6. 사전투표 유권자와 본투표 유권자의 성향은 같다?(p35~41)
 - 모비율 추정에 따른 선거 부정 증명
7. 로이킴의 'Follow the party' (p42~45)
8. 관외사전 득표수가 일치한 쌍이 많은 것은 조작증거?(p46~47)
9. QR코드 사용은 공선법 위반이므로 총선 무효다?(p48)
10. QR코드를 이용해 개표분류기를 조작했다(p49)
11. QR코드에 52자리의 암호화된 코드 존재?(p50)

목 차

12.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에 결과 조작(p51)
13.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외송용 봉투 부실 관리(p52~53)
14. 여주시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p54~55)
15. 동작구 선관위 투표용지 파쇄 의혹(p56~57)
16.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 0명 의혹(p58)
17.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p59~60)
18.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p61~62)
19.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p63~64)
20. 양천구 선관위 앞에서 훼손된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발견(p65~66)
21.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p67)

목 차

- 22.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p68)
- 23.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p69)
- 24.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불량(p70)
- 25.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고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발견(p71)
- 26.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 18,210명 투표는 불가능(p72~76)
- 27. 인구 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은 투표소, 유효표?(p77~79)
- 28. 성북구 개표소의 붙어있는 투표용지(p80~82)
- 29. 뺏뺏안 관외지역구 투표용지(p83~86)
- 30. 안쪽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p87~90)
- 31. 삼립빵 박스 사건(p91~92)
- 32. 무효표가 1번 표로 분류됐다?(p93)
- 33. 선관위가 투표소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p94~95)

목 차

- 34. 관외사전투표 봉투가 순간이동?(p96~97)
- 35.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하는 개표분류기?(p98)
- 36. 종로구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교부수, 투표지수의 차이는 조작의 증거?(p99)
- 37. 선관위가 500만명 개인정보 수집?(p100~101)
- 38.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관련(p102)
- 39. 성남 도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 동별 표시는 조작을 은폐하려한 것(p103)
- 40. 성남 제7선거구의 도의원 투표수와 국회의원 투표수가 다르다(p104~105)
- 41. 선관위의 투표율 선행 발표는 조작증거?(p106~107)
- 42. 중국인 개표사무원, 중국의 총선거입 증거(p108)
- 43. 개표분류기 모니터에 나타난 투표지교부수와 투표지수의 차이는 조작 증거?(109~110)

목 차

- 44.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에 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 직인(p111)
- 45.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예제 조작한 후 재봉인?(p112)
- 46. 지역구 투표지 보관상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발견(P113)
- 47. 기권표가 마이너스라고?(P114~115)
- 48.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복사된 투표용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들(P116~117)
- 49.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인수의 차이(p118)
- 50. 개표 후 투표지 보관박스의 손잡이 구멍(p119~120)
- 51. 선관위 홈페이지 미통당 후보 득표수 셀이 두 칸?(p121~122)
- 52.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를 인멸(p123)
- 53.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p124)
- 54.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p125)

목 차

- 55.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p126)
- 56. 선관위가 전용선이 아닌 일반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했다 (p127)
- 57.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를 유출했다 (p128)
- 58. 개표분류기에 무선 랜카드 설치로 개표결과를 외부전송 (p129~p131)
- 59. 부여군 옥산면에서 투표지 분류시 후보자 혼입 발생 (p132~133)
- 60. 부여군 개표소, 1번보다 2번 재확인대상 분류가 많았다(p134)

1. 사전투표 득표율 63 : 36의 비밀

서울, 인천, 경기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모두 63:36으로 너무나 비슷.

세 지역이 공이 일치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이 아니라 (로또 맞을 확률 X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음. 따라서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

가로세로연구소		사전투표 득표비율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서울	63.92 %	36.08 %	
경기	63.54 %	36.46 %	
인천	63.42 %	36.58 %	

1-1. 검증 : 20대 총선도 유사한 결과가 많았다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 서울/경기/인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

서울 46%(새) : 54%(민)

경기 46%(새) : 54%(민)

인천 46%(새) : 54%(민)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비슷한 수치를 내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같은 생활권에 세대별 인구 구성비, 지역 출신별 인구 구성비, 동일 여론 영향권이라는 특성 때문.

1-2. 검증 : 동별로는 사전득표 편차가 크다

종로구의 각동별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사전관내투표 득표율, 당일 득표율, 전체 득표율, 사전관내-당일 득표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전관내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전체 득표율	사전관내-당일
창신1동	70.5% : 29.5%	59.9% : 40.1%	64.9% : 35.1%	10.6%
창신2동	75.2% : 24.8%	63.4% : 36.6%	67.6% : 32.4%	11.8%
승인2동	71.8% : 28.2%	61.9% : 38.1%	66.3% : 33.7%	9.9%
평창동	59.6% : 40.4%	40.6% : 59.4%	47.9% : 52.1%	19.0%
청운요사	72.0% : 28.0%	51.2% : 48.8%	60.7% : 39.3%	20.8%

이낙연의 사전관내 득표율은 청운효자동이 72%로 가장 높고 평창동이 59.6%로 가장 낮아 그 차가 12.4%. 평창동의 경우 전체 득표율에서 황교안이 앞섰지만 사전관내득표율은 이낙연이 10% 앞섰고, 청운효자동의 경우는 사전관내-당일 득표율 차가 무려 20.8%에 이름. 하지만 송인2동은 그 차가 9.9%로 청운효자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이렇게 각동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차가 크고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움.

서울, 경기, 인천권을 비교해 보면 어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수치도 유사해 짐. 이것은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 때문. 표본 집단이 커지면서 비슷한 환경의 권역에 있는 집단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게 됨.

1-3. 검증 :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만 63:36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파악됐고,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남.

2. 두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비율이 일치

관외사전, 관내사전 득표율 99%이상 일치하는 지역구

7 작스 | 21:35:47 | [목록으로 건너뛰기](#)

정당	지역구	후보자	관외사전	관내사전	관외득표율	관내득표율	일치율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8753	25086	0.6272304	0.6376554	99.0%
미래통합당	고양시정	김현아	5202	14255	0.3727696	0.3623446	99.0%
미래통합당	구미시을	김영식	5274	12969	0.549089	0.5590809	99.0%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김현권	4331	10228	0.450911	0.4409191	99.0%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6020	16847	0.6496169	0.659348	99.0%
미래통합당	세종을	김병준	3247	8704	0.3503831	0.340652	99.0%
미래통합당	성북구갑	한상학	4550	12955	0.298988	0.3084157	99.1%
더불어민주당	성북구갑	김영배	10668	29050	0.701012	0.6915843	99.1%
미래통합당	노원구갑	이노근	3468	7669	0.3250234	0.3344381	99.1%
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고용진	7202	15262	0.6749766	0.6655619	99.1%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	정청래	8304	23886	0.6761114	0.6849818	99.1%
미래통합당	마포구을	김성동	3978	10985	0.3238886	0.3150182	99.1%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상록구갑	전해철	5072	19326	0.6808968	0.6721152	99.1%
미래통합당	안산시상록구갑	박주원	2377	9428	0.3191032	0.3278848	99.1%

2-1. 검증 : 관내/관외 득표수비율 일치지역구는 11개(4.3%)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 득표수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총 253개 중 11개(4.3%)이며, 각 지역구별 상수는 0.25 ~ 0.39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

시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제 비율		소수 셋째자리 절삭	
	관내	관외	관내	관외	민주당	통합당	민주당	통합당
서울 종로구	24,093	6,472	11,777	3,169	0.269	0.269	0.26	0.26
서울 용산구	24,432	7,555	17,699	5,346	0.309	0.302	0.30	0.30
서울 송파구병	26,646	8,377	15,684	4,992	0.314	0.318	0.31	0.31
인천 연수구을	15,797	6,185	11,335	4,460	0.392	0.393	0.39	0.39
인천 남동구갑	22,911	8,059	13,959	4,966	0.352	0.356	0.35	0.35
인천 서구갑	25,722	6,625	16,177	4,069	0.258	0.252	0.25	0.25
인천 서구을	26,671	7,833	12,668	3,690	0.294	0.291	0.29	0.29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26,790	7,530	19,087	5,360	0.281	0.281	0.28	0.28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3,826	7,008	15,208	4,488	0.294	0.295	0.29	0.29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12,703	3,533	7,462	2,070	0.278	0.277	0.27	0.27
제주 서귀포시	19,403	5,304	11,771	3,278	0.273	0.278	0.27	0.27

▶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은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0.44), 대전 유성구갑(0.65), 충남 논산계룡금산(0.47) 3곳.

▶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의 비율이 동일한 상수라는 것은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2-2. 검증 :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서 일치하는 지역구가 늘어난 이유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12%, 21대는 27%, 사전투표율 2배 이상 높아져 표본수가 늘어남에 따라 큰수의 법칙이 작용.

국군장병들은 관외 사전투표를 함. 20대에서는 국군장병들의 관외투표 비중이 높아 관외득표율에 20대 정당 지지율의 영향이 컸음.

21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국군장병의 관외투표 비중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듦. 따라서 관외투표 득표율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게 됨.

또한 요즈음 20대 남성이 보수화 되어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아(미통당 지지율보다 높긴 하지만) 전체 평균에 가깝게 나옴.

이런 점 때문에 국군장병의 관외 투표가 두 후보들의 관외/관내 득표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두 후보들의 관외/관내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것.

3.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높다

전국 읍면동 단위 사전선거-당일선거 득표차 증감 현황

지역		읍면동수	민주당 사전득표-당일득표					통합당(제2당) 사전-당일득표				
			+	+득표차 평균	-	-득표차 평균	증감 평균	+	+득표차 평균	-	-득표차 평균	증감 평균
총계		3,481	3,328	+9.4%	153	-2.6%	+8.9%	188	+1.7%	3,293	-8.6%	-8.0%
수도권	서울	424	424	+12.6%			+12.6%			424	-11.8%	-11.8%
	경기	546	545	+11.6%	1	-39.9%	+11.5%			546	-10.9%	-10.9%
	인천	154	154	+9.6%			+9.6%			154	-8.3%	-8.3%
강원	강원	185	185	+12.2%			+12.2%			185	-10.9%	-10.9%
충청	대전	79	79	+10.6%			+10.6%			79	-9.8%	-9.8%
	충남	207	203	+10.6%	4	-1.1%	+10.3%	4	+2.3%	203	-9.5%	-9.2%
	충북	153	153	+9.8%			+9.8%			153	-9.2%	-9.2%
	세종	19	19	+11.9%			+11.9%			19	-10.5%	-10.5%
제주	제주	43	43	+9.3%			+9.3%			43	-8.7%	-8.7%
부/울/ 경남	부산	205	205	+10.9%			+10.9%			205	-10.1%	-10.1%
	울산	56	56	+11.3%			+11.3%			56	-11.5%	-11.5%
	경남	305	296	+8.6%	9	-1.7%	+8.3%	19	+2.5%	286	-8.3%	-7.6%
대구/경북	대구	139	139	+8.6%			+8.6%			139	-7.3%	-7.3%
	경북	332	305	+6.6%	27	-1.8%	+5.9%	37	+2.2%	295	-6.7%	-5.7%
전라	광주	95	85	+3.0%	10	-0.9%	+2.6%	19	+0.9%	76	-1.9%	-1.3%
	전남	297	234	+4.2%	63	-2.7%	+2.7%	67	+1.9%	230	-2.2%	-1.3%
	전북	242	203	+4.7%	39	-2.7%	+3.5%	42	+0.7%	200	-2.5%	-1.9%

- 서울지역 424개동 중에 사전선거-당일선거가 +인 동은 민주당은 424개, 통합당은 0개
서울지역 민주당의 + 폭은 +12.6%, 통합당의 -폭은 -11.8%
- 경기지역 546개 읍면동 중에 사전선거-당일선거가 +인 동은 민주당 545개, 통합당은 0개
경기지역 민주당의 + 폭은 +11.6%, 통합당의 -폭은 -10.9%
- 파란색 점선안의 2,071개 읍면동중 사전선거-당일선거가 -인 읍면동은 민주당 5개, 통합당 2,067개
* 그나마 민주당의 경기지역 -는 화성시갑 봉담읍인데 선관위 자료에는 관내사전선거결과가 없어서 -39.9%임.
- 반면, 빨간색 점선안의 호남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의 +폭도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히 작고(+2~3%대)
사전선거-당일선거가 -인 지역도 나옴.

3-1. 검증 :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나는 이유

- ▶ 사전투표한 자집단은 모집단과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착각.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각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각각.
- ▶ 민주당은 사전투표 독려한 반면, 통합당 지지 그룹에서 '사전투표 거부' 운동 전개해, 미통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더 꺼려함.
- ▶ 코로나19로 인해 분산 투표하려는 60대층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적극 활용한 반면, 통합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소극적.
- ▶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 ▶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 지지자들보다 사전투표 참여의사를 밝힌 비율이 월등히 높게(2배) 나왔음.

3-2. 검증 : 사전투표 의향 여론조사

[표3. 투표 예정일]

(n=1,000, %)		사례수		선거일인 4월 15일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 11일	지금은 잘 모르겠다/무응답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사례수			
전체		(1018)	(1000)	66.9	27.0	6.1
성별	남	자 (504)	(495)	64.0	29.7	6.3
	여	자 (514)	(505)	69.7	24.4	5.9
연령별	18세 ~ 29세	(175)	(180)	64.6	29.8	5.6
	30대	(163)	(160)	64.2	29.7	6.1
	40대	(199)	(192)	63.4	32.7	4.0
	50대	(183)	(197)	65.1	30.1	4.8
	60대 이상	(298)	(271)	▲73.8	▼17.4	8.8
지역별	서울	(201)	(192)	66.7	28.5	4.8
	경기 / 인천	(319)	(308)	68.0	27.1	4.9
	대전 / 세종 / 충청	(108)	(106)	64.6	28.6	6.8
	광주 / 전라	(103)	(99)	59.6	31.3	9.1
	대구 / 경북	(100)	(99)	▲76.7	▼15.1	8.2
	부산 / 울산 / 경남	(146)	(154)	68.0	26.7	5.3
	강원 / 제주	(41)	(42)	55.0	35.0	10.0
직업별	농림어업	(23)	(21)	70.4	17.0	12.6
	자영업	(176)	(174)	66.6	25.1	8.3
	블루칼라	(155)	(154)	61.0	30.7	8.4
	화이트칼라	(273)	(269)	65.7	32.6	▼1.7
	가정주부	(195)	(189)	73.1	▼19.5	7.5
	학생	(88)	(91)	67.4	25.1	7.4
	기타 / 무직	(108)	(102)	66.7	27.9	5.4
이념 성향별	보수	(276)	(275)	▲74.0	21.5	4.6
	중도	(326)	(318)	64.8	27.6	7.6
	진보	(338)	(333)	62.9	▲32.9	4.1
	모름 / 무응답	(78)	(74)	67.4	18.4	▲14.2
지역구 투표후보 소속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441)	(432)	▼59.0	▲37.5	▼3.5
	미래통합당	(258)	(253)	▲79.4	▼16.5	4.1
	민생당	(14)	(13)	64.8	28.0	7.2
	정의당	(35)	(34)	67.6	21.8	10.6
	우리공화당	(5)	(6)	54.7	45.3	0.0
	민중당	(12)	(11)	59.9	30.2	9.9
	친박신당	(5)	(5)	▲100.0	0.0	0.0
	기타정당	(20)	(19)	65.3	29.9	4.8
	무소속	(27)	(27)	67.8	24.2	8.0
국정운영 평가	없다 / 무응답	(201)	(199)	67.9	▼18.6	▲13.5
	긍정평가층	(590)	(578)	▼61.6	▲32.8	5.6
	부정평가층	(375)	(371)	▲75.3	▼18.8	5.9
	모름 / 무응답	(53)	(52)	65.5	21.7	12.8
총선 투표의향	반드시 투표	(854)	(837)	68.0	27.5	4.5
	가능하면 투표	(135)	(134)	63.8	26.5	9.6
	비투표	(26)	(27)	▼46.3	16.7	▲37.0
	모름 / 무응답	(3)	(3)	66.1	0.0	33.9

3-3. 검증 : 사전투표 의향 여론조사

사전투표(4/10, 4/11)가 있기 전에 각 여론조사기관이 사전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4/5, 조사의뢰 : KBS, 여론조사 : 한국리서치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3.4%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9.7%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6.0%

2. 조사기간 : 4/6, 조사의뢰 : 뉴스1,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37.5%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6.5%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1.8%

3. 조사기간 : 4/3~4/6, 조사의뢰 : 중앙일보,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9.5%

미통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18.7%

정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 : 27.3%

3-4. 검증 : 미통당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왜?

사전투표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층보다 통합당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사실을 들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없고, 따라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차가 클 수 없다고 주장.

검증 : 이건 착시일 뿐이지 정상적인 결과.

세대별 사전투표율은, 20대+30대+40대 ; 23.80%, 50대 : 30.25%, 60대 이상 : 31.92%. 각 세대별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자들의 적극성이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60대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저 결과는 정상.

1. 코로나19에 민감한 60대 이상은 가급적 분산해 투표하고 싶어 했다.
2.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었으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공정연의 사전투표 배척 운동으로 사전투표를 꺼림

1,2를 조합하면 60대 이상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오나, 그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 단순히 60대 이상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고 사전투표율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통합당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2항을 간과한 것.

3-5. 검증 : 20대 총선, 19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현상 발생

20대 총선에서도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5% 이상 나는 지역구가 67개, 10%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는 9개 이름. 대구 북구갑은 19.8% 차이가 남.

19대 대선에서 비슷한 현상 발생. (서울 강남구의 문재인 후보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12.9%)

21대 총선에서만 일어난 특이사항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19대 대선 서울 강남>			
구 분	문재인	홍준표	문 + 홍
사전 득표수	50,061	26,445	76,506
사전 득표율	65.4%	34.6%	100.0%
당일 득표수	78,866	71,194	150,060
당일 득표율	52.6%	47.4%	100.0%
사전-당일	12.9%	-12.9%	0.0%

3-6.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수도권)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5%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								
광역	선거구	후보	소속정당	사전득표	당일득표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사전-당일
서울	동대문갑	허용범	새누리	5,983	29,610	40.9%	48.8%	-7.8%
		안규백	민주	8,629	31,099	59.1%	51.2%	7.8%
	강북갑	정양석	새누리	5,206	24,892	48.1%	54.5%	-6.4%
		천준호	민주	5,612	20,799	51.9%	45.5%	6.4%
	강남병	이은재	새누리	8,737	40,389	54.9%	60.4%	-5.6%
		전원근	민주	7,187	26,437	45.1%	39.6%	5.6%
경기	의정부갑	강세창	새누리	6,259	28,173	41.9%	48.4%	-6.5%
		문희상	민주	8,694	30,045	58.1%	51.6%	6.5%
	동두천연처	김성원	새누리	3,290	16,295	56.2%	63.2%	-7.0%
		유진현	민주	2,566	9,507	43.8%	36.8%	7.0%
	군포을	금병찬	새누리	5,962	17,916	37.8%	43.6%	-5.8%
		이학영	민주	9,817	23,221	62.2%	56.4%	5.8%
	용인갑	이우현	새누리	7,648	34,927	50.3%	56.6%	-6.3%
		백군기	민주	7,550	26,771	49.7%	43.4%	6.3%
	안성	강학용	새누리	7,888	30,522	55.5%	60.9%	-5.4%
		이규민	민주	6,320	19,596	44.5%	39.1%	5.4%
	가평	김영우	새누리	9,743	44,899	56.2%	63.7%	-7.5%
		김창균	민주	7,599	25,588	43.8%	36.3%	7.5%
	여주양평	정병국	새누리	12,734	46,513	59.5%	64.8%	-5.3%
		정동균	민주	8,667	25,291	40.5%	35.2%	5.3%

3-7.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충청권)

광역	선거구	후보	소속정당	사전득표	당일득표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사전-당일
대전	중구	이은권	새누리	8,964	39,501	50.1%	56.4%	-6.4%
		송행수	민주	8,941	30,482	49.9%	43.6%	6.4%
	동구	이장우	새누리	9,089	38,425	49.5%	55.3%	-5.8%
		강래구	민주	9,271	31,031	50.5%	44.7%	5.8%
	유성갑	진동규	새누리	5,568	20,672	36.9%	42.4%	-5.6%
		조승래	민주	9,529	28,040	63.1%	57.6%	5.6%
	유성을	김신호	새누리	7,337	14,301	36.4%	29.5%	6.9%
		이상민	민주	12,805	34,209	63.6%	70.5%	-6.9%
충북	서원구	최현호	새누리	9,791	33,609	43.4%	51.3%	-7.9%
		오제세	민주	12,793	31,923	56.6%	48.7%	7.9%
	흥덕구	송태영	새누리	6,971	33,062	39.1%	45.8%	-6.7%
		도종환	민주	10,844	39,138	60.9%	54.2%	6.7%
	청원구	오성균	새누리	9,557	22,218	42.9%	50.1%	-7.1%
		변재일	민주	12,708	22,160	57.1%	49.9%	7.1%
	제천단양	권석창	새누리	9,184	36,350	57.9%	65.6%	-7.6%
		이후삼	민주	6,667	19,091	42.1%	34.4%	7.6%
충남	천안갑	박찬우	새누리	6,282	30,423	51.2%	58.1%	-6.9%
		한태선	민주	5,993	21,961	48.8%	41.9%	6.9%
	부여청양	정진석	새누리	10,979	40,180	44.6%	54.1%	-9.5%
		박수현	민주	13,647	34,145	55.4%	45.9%	9.5%
	보령서천	김태홍	새누리	9,113	32,228	47.2%	55.1%	-7.9%
		나소열	민주	10,201	26,273	52.8%	44.9%	7.9%
	서산태안	성일종	새누리	9,069	32,112	43.5%	53.8%	-10.4%
		조한기	민주	11,791	27,535	56.5%	46.2%	10.4%
	홍성예산	홍문표	새누리	7,131	28,827	54.0%	66.8%	-12.9%
		강희권	민주	6,083	14,313	46.0%	33.2%	12.9%

3-8.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영남권)

광역시	선거구	후보	소속정당	사전득표	당일득표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사전-당일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새누리	7,792	39,432	52.9%	61.6%	-8.7%
		이재강	민주	6,934	24,544	47.1%	38.4%	8.7%
	진구갑	나성린	새누리	6,765	35,865	43.8%	49.4%	-5.6%
		김영춘	민주	8,697	36,762	56.2%	50.6%	5.6%
	진구을	이헌승	새누리	7,566	31,541	55.2%	64.0%	-8.8%
		조영진	민주	6,145	17,771	44.8%	36.0%	8.8%
	동래구	이진복	새누리	8,187	44,830	57.5%	65.2%	-7.7%
		김우룡	민주	6,056	23,901	42.5%	34.8%	7.7%
	남구갑	김정훈	새누리	5,609	27,653	46.5%	53.2%	-6.7%
		이정환	민주	6,452	24,286	53.5%	46.8%	6.7%
	강서을	김도읍	새누리	7,487	46,749	50.5%	57.4%	-6.9%
		정진우	민주	7,352	34,735	49.5%	42.6%	6.9%
	해운대갑	하태경	새누리	9,282	41,612	50.6%	57.2%	-6.6%
		유영민	민주	9,076	31,173	49.4%	42.8%	6.6%
	사하갑	김척수	새누리	4,582	26,553	41.3%	49.2%	-8.0%
		최인호	민주	6,520	27,379	58.7%	50.8%	8.0%
	사하을	조경태	새누리	6,954	43,122	64.5%	70.1%	-5.7%
		오창석	민주	3,831	18,354	35.5%	29.9%	5.7%
	금정구	김세연	새누리	10,892	53,832	56.2%	65.1%	-8.9%
		박종훈	민주	8,493	28,876	43.8%	34.9%	8.9%
	연제구	김희정	새누리	7,185	41,195	41.9%	49.7%	-7.8%
		김해영	민주	9,963	41,635	58.1%	50.3%	7.8%
	수영구	유재중	새누리	7,246	35,694	61.3%	68.4%	-7.1%
		김성발	민주	4,572	16,460	38.7%	31.6%	7.1%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새누리	9,798	52,433	64.3%	74.9%	-10.6%
		김동열	민주	5,436	17,580	35.7%	25.1%	10.6%
	북구갑	정태욱	새누리	7,417	38,847	62.9%	82.7%	-19.8%
		권은희	무소속	4,380	8,130	37.1%	17.3%	19.8%
	북구을	양영모	새누리	5,967	35,126	36.5%	44.0%	-7.5%
		홍의탁	무소속	10,397	44,775	63.5%	56.0%	7.5%
	수성갑	김문수	새누리	10,932	40,225	33.8%	38.9%	-5.1%
		김부겸	민주	21,393	63,184	66.2%	61.1%	5.1%
	수성을	이인선	새누리	5,714	26,235	36.9%	44.7%	-7.9%
		주호영	무소속	9,790	32,414	63.1%	55.3%	7.9%
	달서병	조원진	새누리	6,501	37,151	65.0%	75.2%	-10.1%
		조석원	무소속	3,493	12,271	35.0%	24.8%	10.1%
	달성군	추경호	새누리	5,670	34,344	69.1%	78.0%	-9.0%
		조기석	민주	2,540	9,663	30.9%	22.0%	9.0%

광역시	선거구	후보	소속정당	사전득표	당일득표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사전-당일
울산	남구갑	이재익	새누리	6,680	29,631	46.8%	52.7%	-5.9%
		심규명	민주	7,595	26,625	53.2%	47.3%	5.9%
	북구	윤두환	새누리	6,307	28,350	31.5%	40.5%	-9.0%
		윤종오	무소속	13,731	41,716	68.5%	59.5%	9.0%
경북	안동	김광림	새누리	13,675	41,012	75.9%	83.0%	-7.1%
		이성노	민주	4,337	8,391	24.1%	17.0%	7.1%
	구미을	장석춘	새누리	7,061	29,520	47.1%	53.8%	-6.8%
		김태환	무소속	7,940	25,319	52.9%	46.2%	6.8%
	영주예천	최고일	새누리	18,320	51,293	58.2%	63.7%	-5.5%
		김수철	무소속	13,175	29,238	41.8%	36.3%	5.5%
	상주군위	김종태	새누리	22,186	62,589	72.6%	79.6%	-7.1%
		김영태	민주	8,384	15,993	27.4%	20.4%	7.1%
	고령칠곡	이완영	새누리	10,939	46,074	62.8%	71.3%	-8.5%
		박장호	민주	6,474	18,559	37.2%	28.7%	8.5%
	창원의창	박완수	새누리	10,338	54,081	53.4%	59.3%	-5.9%
		김기운	민주	9,033	37,146	46.6%	40.7%	5.9%
경남	마산합포	이주영	새누리	9,184	44,588	62.4%	70.8%	-8.4%
		박남현	민주	5,527	18,388	37.6%	29.2%	8.4%
	마산회원	윤한홍	새누리	7,392	40,182	47.2%	53.3%	-6.1%
		하귀남	민주	8,261	35,203	52.8%	46.7%	6.1%
	진주갑	박대출	새누리	9,354	36,812	55.1%	63.6%	-8.5%
		정영훈	민주	7,617	21,091	44.9%	36.4%	8.5%
	진주을	김재경	새누리	8,972	33,431	64.4%	70.7%	-6.3%
		서소연	민주	4,952	13,836	35.6%	29.3%	6.3%
	산청함양	강석진	새누리	14,499	46,396	63.6%	73.7%	-10.1%
		권문상	민주	8,283	16,557	36.4%	26.3%	10.1%

3-9. 검증 : 20대 총선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강원, 호남, 제주)

광역	선거구	후보	소속정당	사전득표	당일득표	사전득표율	당일득표율	사전-당일
강원	원주갑	김기선	새누리	6,062	25,626	43.3%	52.0%	-8.7%
		권성중	민주	7,929	23,613	56.7%	48.0%	8.7%
	원주을	이강후	새누리	6,844	26,686	43.6%	51.6%	-7.9%
		송기헌	민주	8,840	25,051	56.4%	48.4%	7.9%
	강릉시	권성동	새누리	9,824	44,267	53.0%	62.6%	-9.7%
		김경수	민주	8,726	26,436	47.0%	37.4%	9.7%
	동해삼척	박성덕	새누리	9,644	16,152	50.5%	36.3%	14.1%
		이철규	무소속	9,460	28,286	49.5%	63.7%	-14.1%
	춘천시	김진태	새누리	13,404	52,536	46.9%	54.0%	-7.1%
		허영	민주	15,171	44,828	53.1%	46.0%	7.1%
	홍천철원	황영철	새누리	11,908	37,900	54.4%	60.5%	-6.1%
		조일현	민주	9,984	24,719	45.6%	39.5%	6.1%
	속초고성	이양수	새누리	7,646	29,600	54.2%	64.5%	-10.3%
		김주학	민주	6,460	16,285	45.8%	35.5%	10.3%
전남	담양함평	이개호	민주	18,261	29,825	56.4%	49.9%	6.5%
		강형욱	국민의당	14,115	29,909	43.6%	50.1%	-6.5%
	해남완도	김영록	민주	11,453	24,605	47.8%	41.0%	6.7%
		윤영일	국민의당	12,532	35,384	52.2%	59.0%	-6.7%
제주	제주시갑	양치석	새누리	5,896	32,361	36.1%	45.0%	-8.9%
		강창일	민주	10,438	39,526	63.9%	55.0%	8.9%
	제주시을	부상일	새누리	6,556	34,900	42.1%	49.7%	-7.6%
		오영훈	민주	9,009	35,329	57.9%	50.3%	7.6%
	서귀포시	강지용	새누리	6,042	31,055	38.1%	48.6%	-10.5%
		위성곤	민주	9,815	32,904	61.9%	51.4%	10.5%
인천	연수을	민경욱	새누리	6,060	26,707	51.0%	55.4%	-4.4%
		윤종기	민주	5,820	21,509	49.0%	44.6%	4.4%

3-10. 검증 : 지지율 및 사전투표의향에 따른 당일-사전 득표율 차

<21대 총선 수도권, 부산>			
유권자 수	1000		
구분	민주당	미통당	합계
지지율	60%	40%	100%
지지자 수	600	400	1,000
사전투표 참여율	30%	20%	26.0%
사전투표 참가자	180	80	260
사전투표 지지율	69.2%	30.8%	100.0%
당일투표 참여율	70%	80%	74.0%
당일투표 참가자	420	320	740
당일투표 지지율	56.8%	43.2%	100.0%
당일-사전지지율 차이	-12.5%	12.5%	0.0%

<20대 총선 부산, 대구의 경우>			
유권자 수	1000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합계
지지율	60%	40%	100%
지지자 수	600	400	1,000
사전투표 참여율	11.5%	14.5%	12.7%
사전투표 참가자	69	58	127
사전투표 지지율	54.3%	45.7%	100.0%
당일투표 참여율	89%	86%	87.3%
당일투표 참가자	531	342	873
당일투표 지지율	60.8%	39.2%	100.0%
당일-사전지지율 차이	6.5%	-6.5%	0.0%

<21대 총선 호남의 경우>			
유권자 수	1000		
구분	민주당	미통당	합계
지지율	95%	5%	100%
지지자 수	950	50	1,000
사전투표 참여율	30%	20%	29.5%
사전투표 참가자	285	10	295
사전투표 지지율	96.6%	3.4%	100.0%
당일투표 참여율	70%	80%	70.5%
당일투표 참가자	665	40	705
당일투표 지지율	94.3%	5.7%	100.0%
당일-사전지지율 차이	-2.3%	2.3%	0.0%

<20대 총선 호남의 경우>			
유권자 수	1000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합계
지지율	5%	95%	100%
지지자 수	50	950	1,000
사전투표 참여율	11.5%	14.5%	14.4%
사전투표 참가자	6	138	144
사전투표 지지율	4.0%	96.0%	100.0%
당일투표 참여율	89%	86%	85.7%
당일투표 참가자	44	812	857
당일투표 지지율	5.2%	94.8%	100.0%
당일-사전지지율 차이	1.2%	-1.2%	0.0%

3-11. 검증 :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펼친 보수진영

- ▲ 사전투표 조작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우파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하지 말기 운동을 펼쳤던 공정연(공정선거국민연대)
- ▲ 이 단체는 전국 시,도 조직을 갖추고 회원도 1만명, 2019년 4월에 발족하여 그 이후 범국민적인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운동을 전개, 사전투표 불참 및 사전투표함 감시 활동 펼침.
- ▲ 그 영향으로 통합당, 우리공화당, 기독교자유통일당, 친박신당, 새벽당 등 범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림.
- ▲ 공정연의 최대 목표는 통합당 등 범우파 정당 지지자들이 아무도 사전투표 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결과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가 최대가 됨.
- ▲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지지자들에게 독려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했고, 통합당 지지자들은 그보다 적게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
- ▲ 가장 사전투표에 부정적이었던, 공정연의 주장에 동의한 기독교자유통일당, 새벽당, 우공당, 친박신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당일투표.
- ▲ 결국,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는 +13%, 통합당 후보는 -13%, 기독교자유통일당, 새벽당, 우공당, 친박신당의 비례대표(정당) 사전-당일의 득표율 차는 -20~-50%가 나오게 된 것.

3-12. 검증 : 선관위 공식 해명

- ▶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9.5%p ~ 10.5%p)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총 34개.
- ▶ 이 34개 지역구의 당선인 현황을 보면 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이므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움.
- ▶ 민주당 후보의 선거일 투표 득표율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0.5%p(전북 군산)이며, 가장 큰 곳은 18.3%p(충남 당진)로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보임.
- ▶ 따라서 민주당 후보의 투표방법별 득표율이 10%p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일부 선거구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시도명	선거인수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율(%)
합계	43,994,247	11,742,677	26.69
서울특별시	8,477,244	2,313,380	27.29
부산광역시	2,958,290	754,828	25.52
대구광역시	2,071,120	488,048	23.56
인천광역시	2,500,690	618,402	24.73
광주광역시	1,208,263	388,802	32.18
대전광역시	1,237,183	333,218	26.93
울산광역시	953,648	247,631	25.97
세종특별자치시	263,388	85,258	32.37
경기도	11,067,819	2,643,140	23.88
강원도	1,323,766	380,555	28.75
충청북도	1,354,046	361,636	26.71
충청남도	1,781,956	451,016	25.31
전라북도	1,542,579	536,011	34.75
전라남도	1,592,850	569,697	35.77
경상북도	2,282,938	655,257	28.70
경상남도	2,823,511	778,976	27.59
제주특별자치도	554,956	136,822	24.65

영남에 비해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월등히 높음

호남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

4. 박영아 교수의 '통계학적 실현 불가능' 주장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사전-당일 득표율이 12%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한다. 아래는 박영아 교수의 주장.

서울 49 개 선거구 424 개 동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히스토그램을 그림.

이 차이 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러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고, 역으로 미래 통합당은 같은 자료가 -11% 근처에서 분포.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鍾) 모양.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

이런 일들이 경기 인천 지역 73개 선거구의 700개 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 1000승 분의 1 보다 작을 것.

이런 정도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음.

사전선거득표율과 본선거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것.

사전선거의 선거상황(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차이가 +가 될 확률은 1/2, 즉 0.5.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 그리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 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며 실현 불가능한 확률.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4-1. 검증 : 박영아 교수 주장이 놓친 부분

- ▶ 모집단과 자집단은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오해
- ▶ 민주당이나 통합당을 지지하는 모집단은 각 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것이지 사전투표 참여에 대한 의향이 같은 것이 아님.
- ▶ 작위적(인위적) 선택에 따른 확률을 무 작위선택(랜덤) 샘플 추출에 따른 확률로 계산하는 실수.
- ▶ 쉬운 예로 A 학교 1학년 1천명 학생 중에 수학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200명, 다니지 않는 학생이 800명이고, 전체 수학 평균 성적이 60점일 경우, 수학 학원 다니는 학생 200명의 수학 성적 평균이 60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 ▶ 또, 박영아 교수의 논리라면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도 일어나서는 안 됨.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전반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5% 높았고, 전국적으로 5%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 67개, 10% 이상 차이 나는 지역구 9개, 심지어 19%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음. 20대 총선 서울 424개 동의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 대부분 1~5%. 박영아 교수 논리라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 역시 2의 400승 분의 1이하가 되는 것.

5. 미베인(Mebane) 교수 논문

- ▶ 미국은 별도로 사전투표인단을 등록하기에 투표율을 계산.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관내사전투표율을 100%로 입력한 오류 때문에 조작이라고 잘못 결론
- ▶ 선관위 자료 보면, 관내투표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똑같아 관내투표율이 100%로 나오는 것을 미베인 교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관내투표율 100% 나오니까 조작이 있었다고 분석, 그 곳에서 조작으로 winner가 바뀌었다고 함. 그 결과 민주당의 14명 후보, 미통당 11명의 후보,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사기(조작)로 승자가 되었다고 결론.
- ▶ 박원호 서울대 교수의 반론 : “한국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설부른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쓴 미베인 교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집계할 때 참여 인원만 표시하는 국내 관행을 모르다 보니 엉뚱하게도 관내 사전투표율을 95~100%로 착각(실제 전국 사전투표율 26.69%)했다고 설명
-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입력 데이터 오해에서 비롯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된 결과’(Garbage In, Garbage Out)일 뿐”

5-1. 검증 : 미베인 논문은 조작설 주장자에게 불리하다

- ▶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14 지역구, 미통당 후보가 당선된 11 지역구,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2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조작을 통해 승자가 되었다고 분석.
- ▶ 첨부 리스트를 보면,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되고 있음.
- ▶ 조작됐다고 하는 27 곳 중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2곳인데, 이 중에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5곳이고 친통합당 무소속 후보 지역이 1곳으로 범보수 후보 지역이 50%를 차지.
반면, 민주당 후보 당선 서울 지역은 강동갑(진선미)이 유일.
범여:범야로 보아도 14:13으로 어느 쪽에서 조작을 했는지도 불분명.
- ▶ 종로구 청운동은 이낙연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20% 높았고, 종로구 전체에서도 15% 높았는데도 미베인 교수의 사기(조작) 리스트 지역구에서는 빠져 있음.

5-2. 검증 : 미베인 교수가 지적인 조작으로 승리한 지역구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장섭	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김남국	민주당
경기	용인병	정춘숙	민주당
경기	안성	이규민	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민주당
서울	강동갑	진선미	민주당
부산	연제	이주환	미통당
부산	진구갑	서병수	미통당
충남	보령서천	정진석	미통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미통당
경기	분당갑	김은혜	미통당
경남	창원진해	이달곤	미통당
서울	용산	권영세	미통당
서울	강남을	박진	미통당
서울	송파갑	김웅	미통당
서울	송파을	배현진	미통당
대구	수성을	홍준표	무소속
인천	미추홀을	윤상현	무소속

5-3. 검증 : 미베인 교수의 연구는 믿을 수 있나?

- ▶ 통계청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 '미베인 보고서 분석 자료'를 보면 4개 단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 설정한 4개 단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 월터 미베인 교수의 오류를 수정하여 같은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 가능성은 141만8079표(미베인)에서 17만4052표(유경준)로 크게 줄어듦. 전략적 투표 행위란 요소까지 더한다면 보고서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짐.
- ▶ 미시간 대학은 정치통계분야에서 최상위권이나, 월터 미베인 교수의 통계 프로그램은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 월터 미베인 교수의 경력을 보면, 이 통계 프로그램을 쓴 정식 논문은 아직 한 건도 없이 보고서만 존재할 뿐. 보고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문과 다름.
- ▶ 월터 미베인 교수의 첫 부정선거 분석 모델이었던 2000년 미국 대선은 재검표 결과 부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미베인이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이란, 터키, 러시아 등 8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도 이상한 점이 많음.
- ▶ 민경욱 의원의 주장과 달리 미베인 교수는 온두라스, 이라크 선거 분석한 적 없음.
- ▶ 볼리비아는 미베인 교수가 총선의 의혹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보고서 <볼리비아 2019년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결정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통해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해 혼란만 일으킴. 일각에선 나머지 국가도 선거 부정이 있을 법한 나라만 골라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까지

6. 모비율 추정에 따른 선거 부정 증명

- ▶ 모비율 추정에 의하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 ▶ 사전투표 득표율(자집단)을 근거로 모비율 추정 이론에 따라 전체 득표율(모집단)을 추정.
- ▶ 모집단과 자집단은 동일한 정치적 성향임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전제하여, 모비율 추정 이론에 따라 사전득표율로 전체득표율의 범주를 확률적으로 계산.
- ▶ 맹점 : 과거 선거(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결과를 모비율 이론으로 추정하면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됨.

6-1. 검증 : 모비율 추정 이론

모비율이 p 인 이항분포에서 충분히 크기가 큰 n 의 확률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비율 $\hat{p} = \frac{X}{n}$ 에 대해 모비율 p 의 $100(1-\alpha)\%$ 인 신뢰구간은

$$\hat{p} - z_{\frac{\alpha}{2}} \cdot \sqrt{\frac{\hat{p}(1-\hat{p})}{n}} \leq p \leq \hat{p} + z_{\frac{\alpha}{2}} \cdot \sqrt{\frac{\hat{p}(1-\hat{p})}{n}}$$

여기서 $z_{\frac{\alpha}{2}}$ 는 오른쪽 면적이 $\frac{\alpha}{2}$ 인 z 값이다.

6-2. 검증 : 표준정규분포표, K(Z)값

Z	Z의 두번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0	0.5000	0.5040	0.5080	0.5120	0.5160	0.5199	0.5239	0.5279	0.5319	0.5359
0.1	0.5398	0.5438	0.5478	0.5517	0.5557	0.5596	0.5636	0.5675	0.5714	0.5753
0.2	0.5793	0.5832	0.5871	0.5910	0.5948	0.5987	0.6026	0.6064	0.6103	0.6141
0.3	0.6179	0.6217	0.6255	0.6293	0.6331	0.6368	0.6406	0.6443	0.6480	0.6517
0.4	0.6554	0.6591	0.6628	0.6664	0.6700	0.6736	0.6772	0.6808	0.6844	0.6879
0.5	0.6915	0.6950	0.6985	0.7019	0.7054	0.7088	0.7123	0.7157	0.7190	0.7224
0.6	0.7257	0.7291	0.7324	0.7357	0.7389	0.7422	0.7454	0.7486	0.7517	0.7549
0.7	0.7580	0.7611	0.7642	0.7673	0.7704	0.7734	0.7764	0.7794	0.7823	0.7852
0.8	0.7881	0.7910	0.7939	0.7967	0.7995	0.8023	0.8051	0.8078	0.8106	0.8133
0.9	0.8159	0.8186	0.8212	0.8238	0.8264	0.8289	0.8315	0.8340	0.8365	0.8389
1.0	0.8413	0.8438	0.8461	0.8485	0.8508	0.8531	0.8554	0.8577	0.8599	0.8621
1.1	0.8643	0.8665	0.8686	0.8708	0.8729	0.8749	0.8770	0.8790	0.8810	0.8830
1.2	0.8849	0.8869	0.8888	0.8907	0.8925	0.8944	0.8962	0.8980	0.8997	0.9015
1.3	0.9032	0.9049	0.9066	0.9082	0.9099	0.9115	0.9131	0.9147	0.9162	0.9177
1.4	0.9192	0.9207	0.9222	0.9236	0.9251	0.9265	0.9279	0.9292	0.9306	0.9319
1.5	0.9332	0.9345	0.9357	0.9370	0.9382	0.9394	0.9406	0.9418	0.9429	0.9441
1.6	0.9452	0.9463	0.9474	0.9484	0.9495	0.9505	0.9515	0.9525	0.9535	0.9545
1.7	0.9554	0.9564	0.9573	0.9582	0.9591	0.9599	0.9608	0.9616	0.9625	0.9633
1.8	0.9641	0.9649	0.9656	0.9664	0.9671	0.9678	0.9686	0.9693	0.9699	0.9706
1.9	0.9713	0.9719	0.9726	0.9732	0.9738	0.9744	0.9750	0.9756	0.9761	0.9767
2.0	0.9772	0.9778	0.9783	0.9788	0.9793	0.9798	0.9803	0.9808	0.9812	0.9817
2.1	0.9821	0.9826	0.9830	0.9834	0.9838	0.9842	0.9846	0.9850	0.9854	0.9857
2.2	0.9861	0.9864	0.9868	0.9871	0.9875	0.9878	0.9881	0.9884	0.9887	0.9890
2.3	0.9893	0.9896	0.9898	0.9901	0.9904	0.9906	0.9909	0.9911	0.9913	0.9916
2.4	0.9918	0.9920	0.9922	0.9925	0.9927	0.9929	0.9931	0.9932	0.9934	0.9936
2.5	0.9938	0.9940	0.9941	0.9943	0.9945	0.9946	0.9948	0.9949	0.9951	0.9952
2.6	0.9953	0.9955	0.9956	0.9957	0.9959	0.9960	0.9961	0.9962	0.9963	0.9964
2.7	0.9965	0.9966	0.9967	0.9968	0.9969	0.9970	0.9971	0.9972	0.9973	0.9974
2.8	0.9974	0.9975	0.9976	0.9977	0.9977	0.9978	0.9979	0.9979	0.9980	0.9981
2.9	0.9981	0.9982	0.9982	0.9983	0.9984	0.9984	0.9985	0.9985	0.9986	0.9986
3.0	0.9987	0.9987	0.9987	0.9988	0.9988	0.9989	0.9989	0.9989	0.9990	0.9990
3.1	0.9990	0.9991	0.9991	0.9991	0.9992	0.9992	0.9992	0.9992	0.9993	0.9993
3.2	0.9993	0.9993	0.9994	0.9994	0.9994	0.9994	0.9994	0.9995	0.9995	0.9995
3.3	0.9995	0.9995	0.9995	0.9996	0.9996	0.9996	0.9996	0.9996	0.9996	0.9997
3.4	0.9997	0.9997	0.9997	0.9997	0.9997	0.9997	0.9997	0.9997	0.9997	0.9998
3.5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0.9998
4.0	0.999968314									
4.5	0.999996599									
5.0	0.999999713									
5.5	0.999999981									
6.0	0.999999999									

6-3. 검증 : 20대 총선, 민경욱 후보도 조작으로 당선?

99% 신뢰구간(k값 2.33)에서 민경욱 후보의 전체 득표율 예상 범주 :

$$0.418 - 2.33 \cdot \sqrt{\{(0.418 - (1 - 0.418)) / 14964\}} \leq P \leq 2.33 \cdot \sqrt{\{(0.418 - (1 - 0.418)) / 14964\}}$$

$$0.4086 \leq P \leq 0.4274$$

$$40.86\% \leq P \leq 42.74\%$$

실제 전체 득표율 44.40%에서 한참을 벗어남.

20대 총선 연수를 민경욱 후보의 모비율 추정을 통한 k(z)값 ;

$$k(z) = (0.444 - 0.418) / \sqrt{\{(0.418 - (1 - 0.418)) / 14964\}} = 6.45$$

$$k(z) = 6.0 \text{ 일 때 확률 } 99.99999\%$$

즉,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득표율을 볼 때, 전체 득표율이 $39.20\% \leq P \leq 44.40\%$ 이 범주에 들 확률이 99.99999%로 실제 득표율 44.40%가 나올 확률은 0.000001% 이하로 현실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됨.

6-4. 검증 : 20대 총선 인천 연수를 사전, 당일투표 결과

<20대 총선 인천 연수율>				
구 분	새누리 민경욱	민주 윤종기	국민 한광원	유효 투표수
사전 득표수	6,256	6,031	2,677	14,964
사전 득표율	41.8%	40.3%	17.9%	100.0%
당일 득표수	26,707	21,509	11,133	59,349
당일 득표율	45.0%	36.2%	18.8%	100.0%
사전-당일	-3.2%	4.1%	0.9%	0.0%
전체 득표수	32,963	27,540	13,810	74,313
전체 득표율	44.4%	37.1%	18.6%	100.0%
사전-전체	-2.5%	3.2%	-0.7%	0.0%

6-5. 검증 : 19대 대선 사례

<19대 대선 서울 강남>						
구 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유효 투표수
사전 득표수	50,061	26,445	24,778	11,791	8,087	121,616
사전 득표율	41.2%	21.7%	20.4%	9.7%	6.6%	99.6%
당일 득표수	78,866	71,194	55,423	24,385	12,200	242,978
당일 득표율	32.5%	29.3%	22.8%	10.0%	5.0%	99.6%
사전-당일	8.7%	-7.6%	1.1%	-0.3%	0.8%	0.0%
전체 득표수	128,927	97,639	80,201	36,176	20,287	364,594
전체 득표율	35.4%	26.8%	22.0%	9.9%	5.6%	99.6%
사전-전체당일	5.8%	-5.0%	-1.6%	-0.2%	1.1%	0.0%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강남구 모비율 추정을 통한 $k(z)$ 값 ;

$$k(z) = (0.412 - 0.354) / \sqrt{\{(0.412 - (1 - 0.412))\} / 121,616} = 41.13$$

**K=41.13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확률로 태양
이 지금 당장 없어질 확률보다 낮음.**

6-6. 20대 총선 사례

<충남 당진>			
구 분	새누리 김동완	민주 어기구	새+민
사전 득표수	5,341	6,442	11,783
사전 득표율	45.3%	54.7%	100.0%
당일 득표수	22,009	22,088	44,097
당일 득표율	49.9%	50.1%	100.0%
사전-당일	-4.6%	4.6%	0.0%
<부산 해운대갑>			
구 분	새누리 하태경	민주 유명민	새+민
사전 득표수	9,585	9,390	18,975
사전 득표율	50.5%	49.5%	100.0%
당일 득표수	41,612	31,173	72,785
당일 득표율	57.2%	42.8%	100.0%
사전-당일	-6.7%	6.7%	0.0%
<서울 강남갑>			
구 분	새누리 이종구	민주 김성곤	새+민
사전 득표수	8,031	7,595	15,626
사전 득표율	51.4%	48.6%	100.0%
당일 득표수	36,651	29,231	65,882
당일 득표율	55.6%	44.4%	100.0%
사전-당일	-4.2%	4.2%	0.0%

7. 로이킴의 'Follow the party'

- ▶ 민경욱 후보의 주장 : "Follow the party " 의 피보나치 수열 배열로 "게리맨더링 민주당 후보끼리 표 꺾주기" 조작.
- ▶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흠뻑려 놓음. 이 중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옴.
- ▶ 민경욱은 해당 구호가 '영원히 당만 보고 간다'는 중국 공산당 구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중국공산당원 프로그래머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선거부정과 중국과의 내통설도 제기.
- ▶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고 설명.
 1. 게리맨더링을 응용하여 당일득표 50%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다.
 2. 이동시키는 표값은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진 숫자이다.
 3. 이동시키는 무작위 순위를 2진법으로 변환하면 "Follow the party"로 변환
 4. 통합당의 사전투표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의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것이다.
 5. 실제 결과와 표 차이는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 표에서 발생한다.

7-1. 민경욱 의원 주장의 허점

- ▶ 프로그래머가 조작할 수치를 산정하고 해킹하여 중앙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 후보의 실물 표를 자당의 다른 지역구 후보의 표로 이동시키는 것은 각 지역구 투표지에 해당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를 이동시켜 조작하는 것은 불능.
- ▶ 따라서 민경욱의원의 주장은 프로그래머가 해킹을 통해 민주당 후보 득표수를 자당 후보끼리 주고받게 하여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득표현황을 조작하고 당선자를 바꾸었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음.
- ▶ 당선자 확정은 개표장에서 실물투표지를 개표집계하여 참관인들과 여야 선관위원, 지역 선관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개표 현장에서 결정하고 중앙 선관위에 통보하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뿐,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음.
- ▶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피보나치 수열을 쓰든, 해킹을 하든, 전산상으로 민주당 표를 이동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음.
- ▶ 민경욱의 의원이 말하는 "Follow the Party"의 알파벳에 대응하는 숫자 102, 111, 108, 108, 111, 119, 116, 104, 101, 94, 112, 97, 114, 116, 121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없고, 이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지도 않고 있음.

7-2. 검증 : "follow the united future party"도 가능

▶ 민경욱(로이킴)의 "follow the party " 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장난.

▶ 민경욱은 ASCII코드에 따라 "follow the party"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 (10진법)를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수치들에서 찾아 마치 중국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소행을 알리는 문자를 숨겨놓았다고 주장한 것.

▶ ASCII코드에 따른 알파벳의 숫자는 아래와 같음.

a 97, b 98, c 99, d 100, e 101, ..., n 110, ..., x 120, y 121, z 122, "^" 94.

▶ "follow the united future party"는

"102, 111, 108, 108, 111, 119, 94, 116, 104, 101, 94, 117, 110, 105, 116, 101, 100, 94, 102, 117, 116, 117, 114, 101, 94, 112, 97, 114, 116, 121"

▶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의 숫자들을 찾아내 프로그래머가 "미래통합당을 따르라"라는 구호를 숨겨 놓았다고 주장한다면?

7-3. 검증 : Follow the party를 발견한 로이킴은 전문가?



로이킴과 전화인터뷰했던 김미영 VON대표의 설명(출처 : MBC)

“로이킴은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숫자 덕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끌려가서 좀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킴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지금은 작은 편의점 하나를 운영합니다”

8. 사전관외 득표수가 일치한 쌍이 발견된 것이 조작 증거?

4.15총선, 프로그램 조작 배박증거3

미통당 후보 18명의 관외사전 득표율이 똑 같다.!!!

1. 신상진	4,220표	김 웅	4,220표
2. 김용태	1,980표	배준영	1,980표
3. 주광덕	4,725표	김석기	4,725표
4. 허용범	3,713표	김기현	3,713표
5. 김명연	2,070표	하영제	2,070표
6. 정찬민	4,850표	유의동	4,850표
7. 정동만	3,321표	신범철	3,321표
8. 이필운	3,560표	구상찬	3,560표
9. 이양수	611표	김경안	611표

8-1. 검증 : 20대 총선에서는 같은 쌍이 더 많이 발생

- ▶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사례들이 매우 신기한 일처럼 보이지만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 ▶ 대단한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생일 문제'(Birthday problem)의 일종.
- ▶ 생일문제란 얼핏 생각하기에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나오려면 상당히 큰 집단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3명만 모이면 그 중에 생일이 서로 같은 쌍이 존재할 가능성이 50%를 상회. '직관'의 허를 찌르는 '과학'
- ▶ 2016년 20대 총선의 데이터가 그것을 입증.
정유섭(인천부평구갑)-전하진(성남시 분당구을) 후보 각 2천376표,
강동호(서울 중랑구을)-황우여(인천서구을) 후보 각 2천277표,
정용기(대전대덕구)-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후보 각 2천245표,
최홍재(서울 은평구갑)-이상휘(서울 동작구갑) 후보 각 2천235표,
김승제(서울 구로구갑)-윤두환(울산북구) 후보 각 2천185표,
박준선(서울 동대문구을)-김성원(동두천시 연천군) 후보 각 1천511표 등 33쌍 일치
정준길(서울 광진구을)-허용범(서울 동대문구갑)-허명환(경기 용인시을) 등 3명의
후보는 각 1천828표로 같은 경우도 있음.

9. QR코드 사용은 공선법 위반임으로 이번 총선은 무효?

- ▶ 현행 공직자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에 막대가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있음.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
- ▶ QR코드를 사용한 2014년 지선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QR코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됨.
- ▶ 20대 총선에도 QR코드가 사용되어 민경욱도 당선되었는데 이것도 무효?
- ▶ 바코드와 QR코드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QR코드가 조작하기 쉽다면 의혹을 가질 수 있겠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런 이유를 들어 21대 총선 무효라 우기는 것은 무리수.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 ▶ 201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개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어 좌파진영에서 이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라며 18대 대선 무효 주장. 이런 점이 지적을 받자, 2014년 1월, 공직자선거법에 기계장치를 동원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178조 2항)을 신설했음.

10. QR코드를 이용해 개표분류기에서 조작했다

- ▶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 개표시에 미통당 후보 표 3장 중에 1장은 민주당 후보 표로 분류하도록 개표분류기에 프로그래밍 해 놓았다고 주장.
만약 민주당 후보에게로 간 3장 중 1장이 정상적으로 미통당 후보에게 분류된다면 사전투표득표율과 당일투표득표율이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
- ▶ 개표분류기는 개표를 돕는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 선관위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개표분류기의 기록이 그대로 선관위에 전달되지도 않음.
- ▶ 정당 득표수 확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표현장에서 매 투표함 개표완료 즉시 참관인의 확인을 받고 지역선관위에서 결정.
- ▶ 개표분류기에 미통당 후보표 3장 중에 1장은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서 실제 3장 중 1장이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되어 100장 단위로 묶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계수기 육안 검사를 통해 모두 걸러짐.

11. 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2차원 바코드(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코드(총 52자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음.
 - ▶ 단,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상황표 우측상단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는 52자리로 구성.
 - ▶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을 보고할 때 기본정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잘못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사용.
 - ▶ 따라서, 전혀 다른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두고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 (QR코드)에 법에 규정된 정보 외의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거짓.
- ※ 투표함 보전 절차 집행시에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선관위 설명처럼 31자리 정보만 나옴.

12.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여 결과 조작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

- ▶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
- ▶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관계가 없음.
- ▶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도 없음.
-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를 개표하며,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이 매우 낮음.

13.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 관리

- ▶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마감시각 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 우체국은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로부터 2일에 걸쳐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인계받아 분류한 다음 250개의 구·시·군선관위로 5일 동안 배달.
- ▶ 이러한 회송용 봉투의 배달경로와 배달기간을 고려할 때 투표참관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계속 동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 회송용 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배달 받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함
- ▶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의 봉투노출등 관리부실 책임은 피하기 어려움.



노란 상자에 약 1309장 $\times 10 = 13090$ 장이 화물차에 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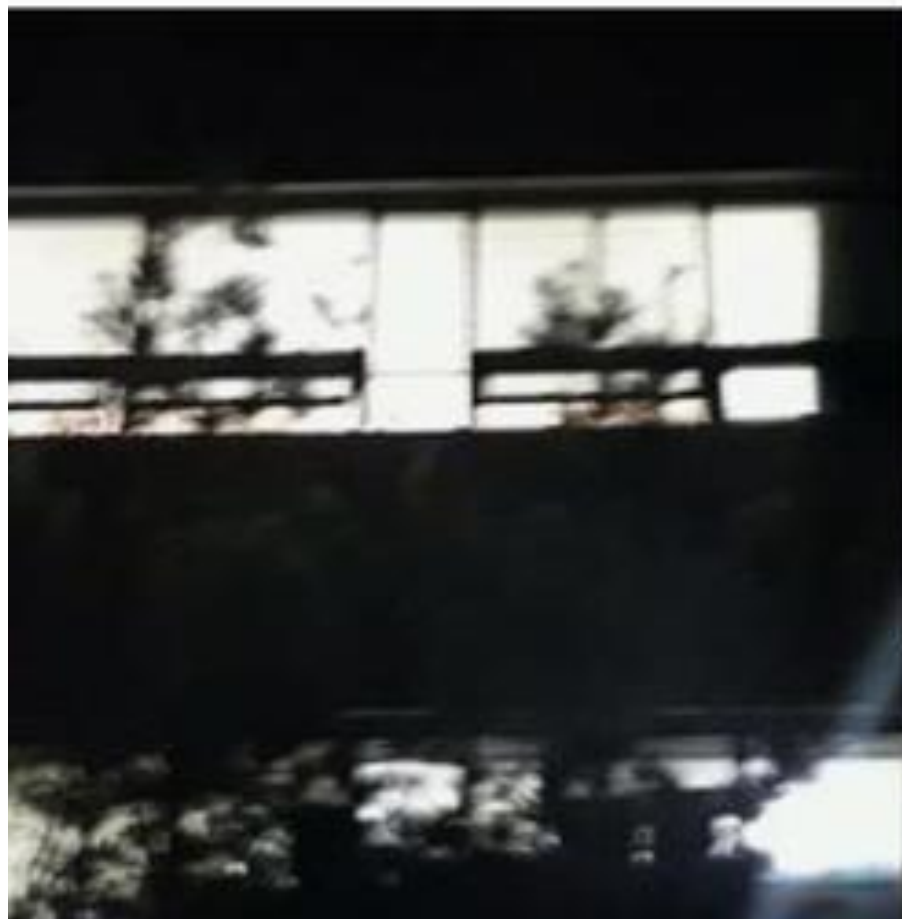
공정연에서 촬영한 관외투표용지 운송장면

14. 여주시에서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외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

- ▶ 선관위는 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개표 관련 사전교육과 장비 점검 등을 실시.
- ▶ 여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대비하여 회송용봉투 접수기 점검을 위해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였고, 모의개표를 실시하면서 색지에 출력한 유효투표집계전을 사용한 다음 파쇄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
- ▶ 여주시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4,819통을 배달받아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4,819통 전부 개표.
- ▶ 회송용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배달받아 바코드를 통해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낮음.

여주 선관위사무실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 분쇄기로 파기한 상태입니다.
왜!!! 사전투표 용지를 분쇄기로 파기했는지 선관위와 경찰은 조사하라!!!! 미
통당은 뭘하고있는가??



15.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파쇄 의혹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거라고 주장

-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 선거국민연대가 촬영한 사진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요원과 사회복지요원이 쓰레기봉투 등을 버리는 모습.
-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투표용지를 파쇄하여 청사건물 1층에 보관해 두었는데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지요원 등이 쓰레기 등을 버리면서 파쇄된 모의시험용 투표용지를 함께 버린 것으로 확인.
- ▶ 해당 사진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서울 동작구·경기 여주시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발견"

16.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의혹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 제기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총 1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그 중 2개의 리(1투·2투)는 화성시갑선거구로, 16개의 리(3투~18투)는 화성시병선거구로 분할하여 획정.
- ▶ 이로 인해 봉담읍은 2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1개소만 설치된 상황.
- ▶ 한편,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은 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관내선거인의 범위는 선거구로 하도록 규정.
- ▶ 따라서 봉담읍이 속해 있는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병선거구 중 어느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내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화성시병선거구인 봉담읍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 대상자로, 화성시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모두 관외사전투표 대상자로 구분.
- ▶ 따라서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경우 관외사전투표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자가 없는 것.

17.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 ▶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 개표소 안의 체력단력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
- ▶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감한 다음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일체는 투표관리관이 선거가방 등에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
- ▶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 등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
- ▶ 관외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된 투표함을 사용하였다가 사전투표 마감후 투표함에서 회송용봉투를 꺼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가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으면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
- ▶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진에 보이는 선거가방과 유사한 색상과 재질로 되어 있으나 상단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 뚜껑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확연히 구분됨.

17-1. 사진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파란색가방들

18.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교체했다?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

- ▶ 일부 시민단체에서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은 4. 10. 18:35경 관내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던 중에 본인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정당추천위원에게 전달하여 창문을 봉인한 것.
- ▶ 또한, 사전투표함 인계 시 동반한 다산2동 사전투표참관(○○당 추천, 오후참관)이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뒷쪽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하여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서명.
- ▶ 유튜브 하면되겠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장면이 잡힌 CCTV를 확보해 특수봉인지 교체라고 방송했지만, 당시 참여인원들의 해명을 듣고 **정정 방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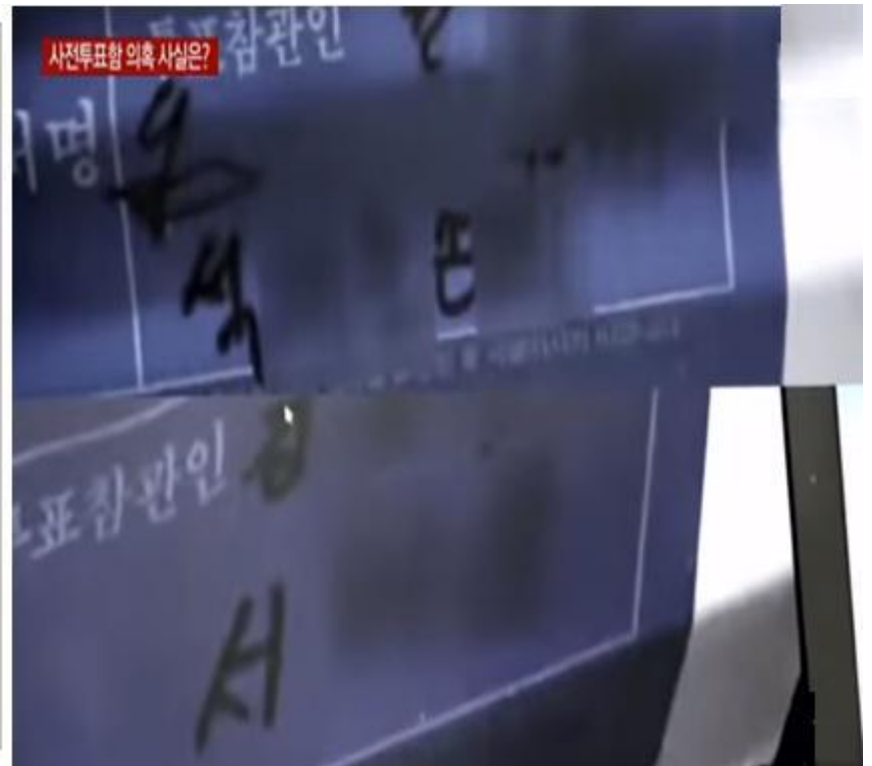
유튜버 하면되겠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 방송영상

19.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

- ▶ 방이1동 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인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선관위까지 관내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
- ▶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에 참여하였고,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부분의 봉인지에도 서명하였는데 모든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모두 정○○씨의 필체로 확인.
- ▶ 그럼에도 정○○씨는 유튜브 등에서 봉인지에 있는 서명이 자기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씨를 조사함.
- ▶ 그 결과 정○○씨는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2개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가 정씨로 하여금 허위주장을 하도록 선동함으로써 부당하게 개표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

19-1.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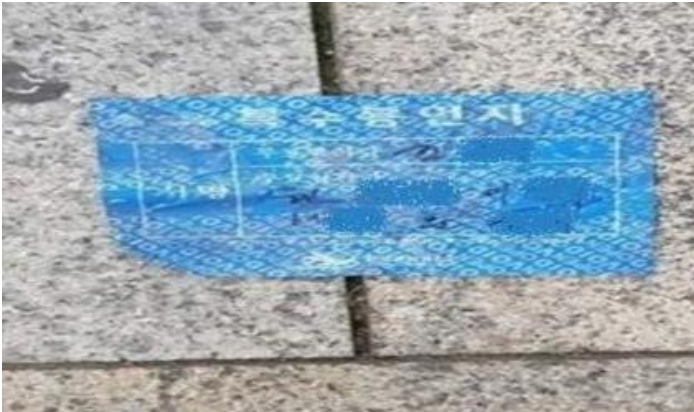


20. 양천구선관위 앞 도로에서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서울 양천구 신정4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

- ▶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 중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며 정리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 일부가 훼손.
-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 후 모든 투표참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표함의 양쪽에 부착된 봉인지 2매를 교체하였고, 교체하기 전 훼손된 봉인지를 회수·처리하면서 1매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
- ▶ 투표함 봉합·봉인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 **향후 봉인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투표관리관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20-1. 사진



신발에 붙은 봉인지



21.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의혹

구·시·군선거위원회에서 선거결과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21대 국선에 사용한 투표함의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보존하지 않고 제거하여 보관

- ▶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 부착.
- ▶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투표지 투입구의 특수봉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그 위에 부착한 것.
- ▶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쪽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와 자물쇠를 제거하여 투표함 뚜껑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 개표.
- ▶ 개함이 완료된 빈 투표함은 개표소 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가 완료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투표지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등을 개표소 내에서 제거하거나 구·시·군선거위원회로 이송하여 제거한 다음 보관.

22.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무더기 발견

- ▶제20대 총선 등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순 없음.
- ▶참고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

23.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 발견

- ▶종량제봉투가 발견된 물류센터는 남양주선관위의 물품보관 창고로 개표 완료 후 빈 투표함 등 선거관련 물품을 보관.
- ▶남양주선관위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을 정리하면서 투표함 투입구 등에 일부 남아 있던 특수봉인지를 제거하였고, 제거된 특수봉인지와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표용구, 스탬프, 안면보호구, 방습제 등 1회용 물품을 종량제봉투에 함께 담아 물류센터 내 폐기물 처리 장소에 내놓은 것.



24.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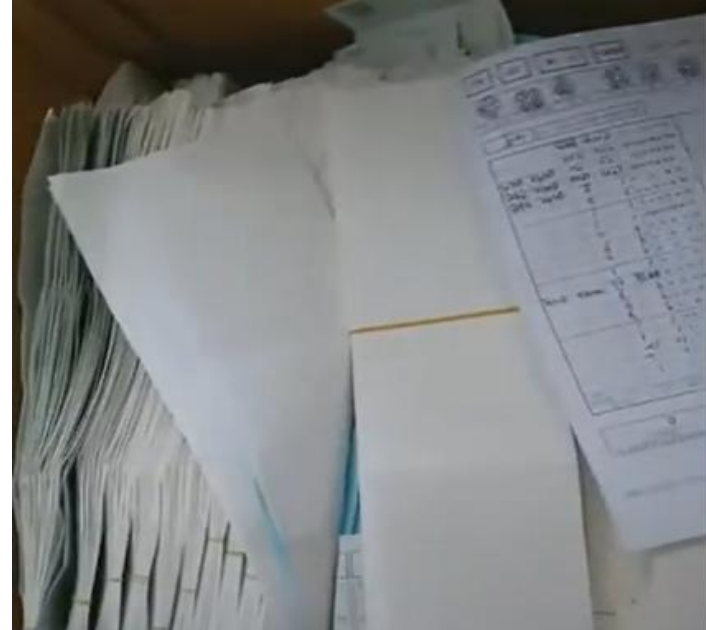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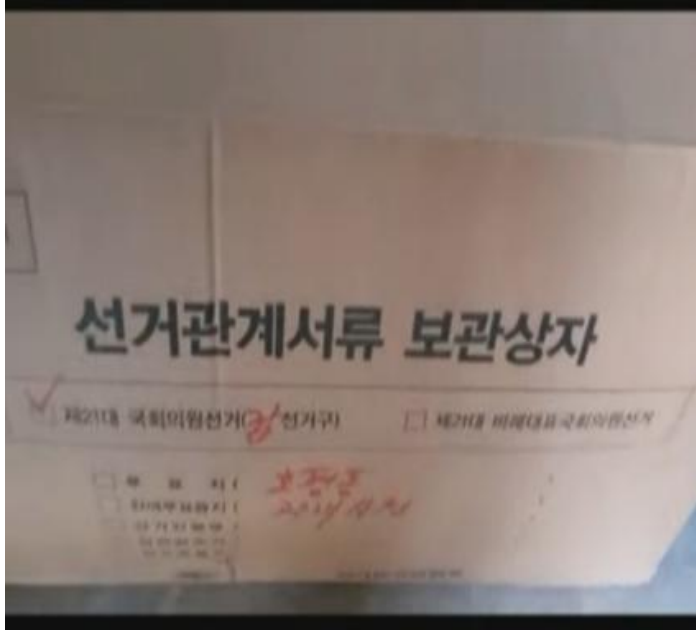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개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된 채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 발견

- ▶ 남양주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인한 것은 기존 봉인상태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테이핑하고 봉인한 것.
- ▶ 투표지 상자 상단이 개봉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입회하에 상자 속 내용물이 증거보전대상 투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것으로 내용물 확인 후 법관의 사인으로 재봉인.
- ▶ 법관의 입회 하에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한 것 외에 투표지 보관상자가 개봉된 것은 없음.



25.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 ▶ 개표소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지 보관상자에 담아 봉합·봉인하고, 투표지 보관상자 겉면에 보관상자에 들어있는 투표지 종류 등을 기재.
- ▶ 지역구 투표지로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정리부 개표사무원이 보관상자 겉면에 **선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재봉인함.
- ▶ **향후 정리부 개표사무원에게 투표지 포장 시 선거종류 등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26.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18,210명 투표는 불가능

- ▶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1군데인데 사전투표수는 18,210으로, 이는 양일간의 사전투표시간에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
- ▶ 즉, 4월 10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일의 투표시간은 6시부터 18시로 각 12시간, **총 24시간으로 18,210명의 사전투표를 하려면,**
 $24\text{h} \times 60\text{분}/\text{h} \times 60\text{초}/\text{분} / 18,210\text{명} = 4.74\text{초당 } 1\text{명이 투표한 것이 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 ▶ 신분 확인하는데 10초, 사전투표지를 프린터가 인쇄하는데 20초 이상, 기표소까지 이동 5초, 기표하는데 10초, 기표소에서 투표함 이동 5초, 투표함에 넣는데 2초는 최소한 소요되어, 1명이 투표하는데 대략 1분은 걸리게 되는데 4.74초만에 어떻게 투표가 가능하냐는 것.

26-1.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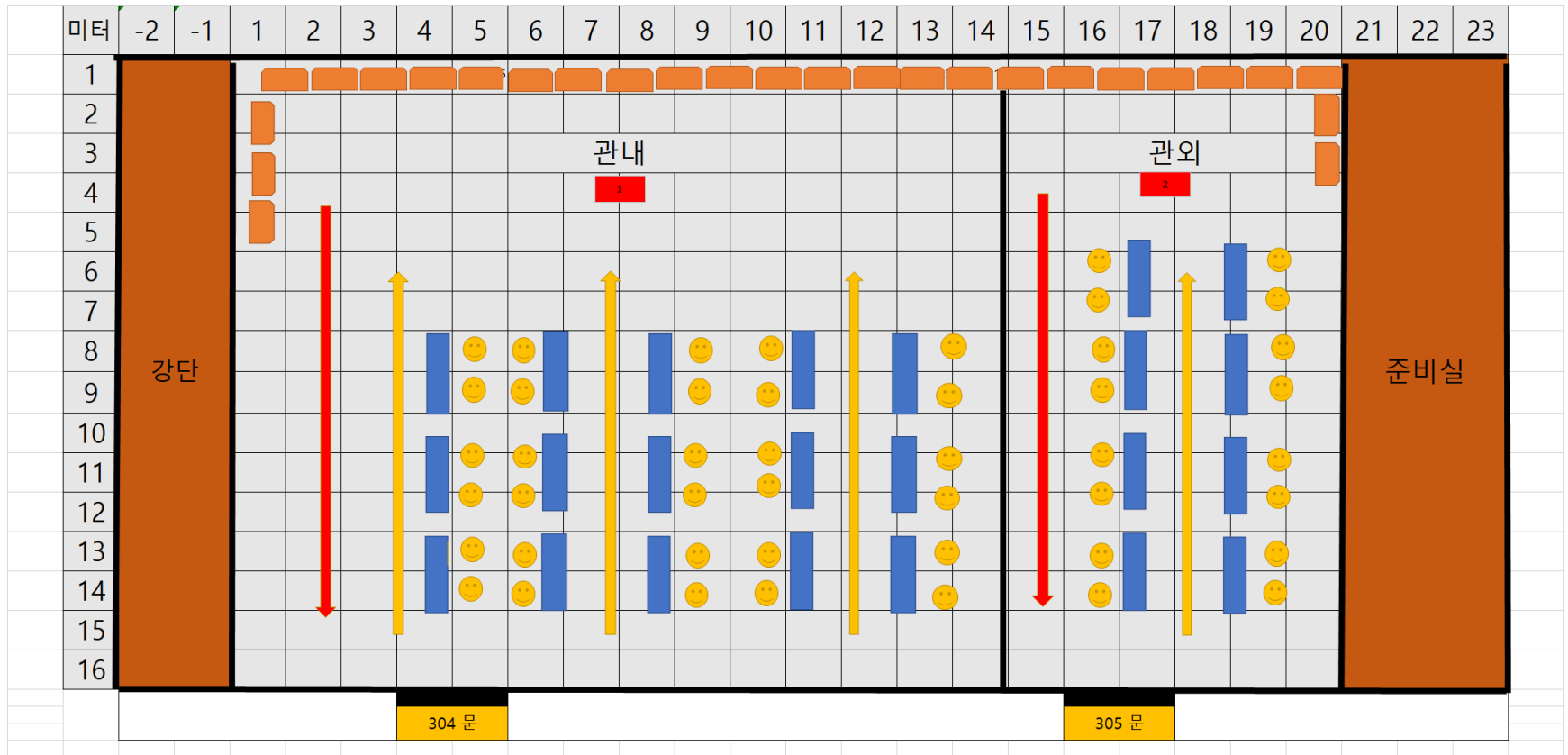
- ▶ 투표의 속도는 병목구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드 타임(lead time)의 개념을 잘못 이해(적용).
- ▶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의 전과정을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초 정도 (리드 타임 60초)인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이 투표를 끝내면 다음 사람이 투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투표수 1이 나오는 시간은 리드타임과는 다른 개념.
- ▶ 투표수 1이 나오는 시간은 모든 투표과정 중 가장 시간이 길게 걸리는 과정 (병목구간)에 소요되는 시간과 같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투표용지 발급 시간(20초)이 투표수 1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
- ▶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프린터 23대(관내 15, 관외 8), 기표소 30개, 투표함 관내, 관외 각각 1 설치.
- ▶ 당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는 3초에 1 투표수가 나오는 것이 가능했음.
3초에 1투표수면, $24 \times 60 \times 60 / 3 = 28,800$ 투표수.
- ▶ 실제 신중동 사전관내투표수는 18,210명이었음으로 가능한 투표수

신중동 사전투표소



26-2. 신중동 사전투표 현장 배치도

- 기표소 : 총 30곳
- 투표용지 프린터
- 관내15대, 관외 8대
- 투표함



입장



퇴장

출처:아크로 사이트
'판단력 부족'님



신중동 사전투표 풍경

27. 인구 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게 나오는 투표소 (진동면, 근북면 등)

**파주 진동면, 근북면의 선거인수가 주민수보다 많게 나온 것이 확인되어
유령표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

- ▶ 실제 중앙선관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전투표수와 당일 투표수를 더하면 주민등록상의 주민 수보다 많게 나와 이상함.
- ▶ 파주 진동면의 경우 2020년 4월 현재 주민 수는 159명(18세 이상 유권자수는 143)인데, 관내사전투표 선거인(투표) 수 114, 당일 투표인 수 67로 사전투표 + 당일 투표가 181로 주민 수 159명을 초과.
- ▶ 투표율이 $181/143 = 126.5\%$ 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더구나 당일 선거인 수는 87명으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 + 당일투표 선거인 수 = 201이 되어 주민 수 보다 무려 42명이 많아짐.
- ▶ 철원 근북면을 살펴보면, 주민 수는 112명인데 관내사전투표 선거(투표)인 수 142명, 당일투표 선거인수 91명, 당일투표수 67명으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수와 당일투표 선거인수를 합하면 233으로 주민 수의 곱절이 넘음.
- ▶ 관내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만 합쳐도 209로 무려 97명이 넘게 나옴.

27-1. 검증 : 관내사전선거 집계 방식이 바뀜

- ▶ 진동면과 근북면은 민통선 안쪽.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외부에 거주하다가 농사철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있음
- ▶ 이런 사람들은 같은 지역구인 파주시(을)와 철원군에 살기 때문에 진동면이나 근북면에서 사전투표하더라도 관외투표가 아니라 관내투표로 집계하는 것으로 21대 총선 부터 변경.
- ▶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사는 A씨와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B씨가 철원군 근북면에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 A씨는 근북면과 같은 춘천시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근북면의 관내사전투표**로 잡히지만, B씨는 춘천시여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유권자임으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갑 관외사전투표**로 집계 됨.
- ▶ 이렇게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는 원래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선거인수(유권자)가 중앙선관위 집계에 나타나는 현상(전국에서 37곳 이상) 발생.
- ▶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든 전국이 관내투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415유령선거

(18세 이상)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지역



242개 지역에서 유령표 **59,438**장 발견



415부정선거



강남 블랙시위



유권자수(선거인수)>인구수 (21대 총선)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2020.3인구수	2020.4인구수
서울동작구	노랑진2동	12,783	8,575	12,711
파주시	진동면	201	181	159
파주시	군내면	617	513	578
연천군	중면	206	161	198
평택시	통복동	4,353	2,811	4,139
안성시	고삼면	2,157	1,655	1,930
하남시	신장1동	6,593	4,190	6,440
대전중구	유천1동	6,906	4,228	6,754
대전동구	중앙동	5,055	3,018	5,080
세종시	연기면	2,776	1,782	2,605
충주시	성내.충인동	3,047	2,055	2,803
보령시	대천2동	7,103	5,200	7,065
부산중구영도구	광복동	1,175	820	1,117
부산남구	용호제3동	13,777	10,461	12,768
대구달성군	하빈면	3,843	2,670	3,752
경주시	보덕동	2,029	1,582	1,824
경산시	중앙동	6,976	4,498	6,706
상주시	화북면	1,474	1,070	1,256
영주시	영주2동	3,800	2,854	3,653
구미시	원평1동	3,941	2,098	3,898
구미시	원평2동	3,879	2,681	3,401
김천시	봉산면	3,231	2,431	3,247
마산합포구	가포동	923	722	672
거창군	남하면	1,758	1,413	1,428
거창군	마리면	2,048	1,554	1,996
거창군	주상면	1,580	1,245	1,559
함안군	산인면	3,015	2,251	2,769
밀양시	내일동	3,322	2,307	2,900
사천시	축동면	1,753	1,283	1,681
통영시	명정동	3,380	2,418	3,128
철원군	근북면	233	209	111
강릉시	중앙동	5,529	3,835	5,116
강릉시	옥천동	3,700	2,515	3,392
속초시	영랑동	4,702	3,182	4,703
춘천시	교동	3,610	2,471	3,624
춘천시	신동면	2,891	2,164	2,584
원주시	중앙동	3,085	1,846	2,846
서귀포시	정방동	2,447	1,458	2,243
여수시	화정면	1,815	1,241	1,334
군산시	중앙동	3,355	2,410	2,907

유보 : 3월 인구>선거인수 and 4월 인구<선거인수

28. 성북구 개표소의 붙어 있는 투표지

▶ 조작자들이 사전투표용지를 급히 바꿔치기 하느라 완전히 절취(재단)되지 않아 중간 부분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 두 장을 투표함에 넣은 것이라 주장.

검증 : 절취되지 않아 접혀 있는데도 왜 두 장 모두 앞면에 인쇄와 기표가 되어 있는가? 투표지가 중간에 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떼어내게 되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절단면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찢어진 상태가 되며 떼어내는 동작도 저런 동작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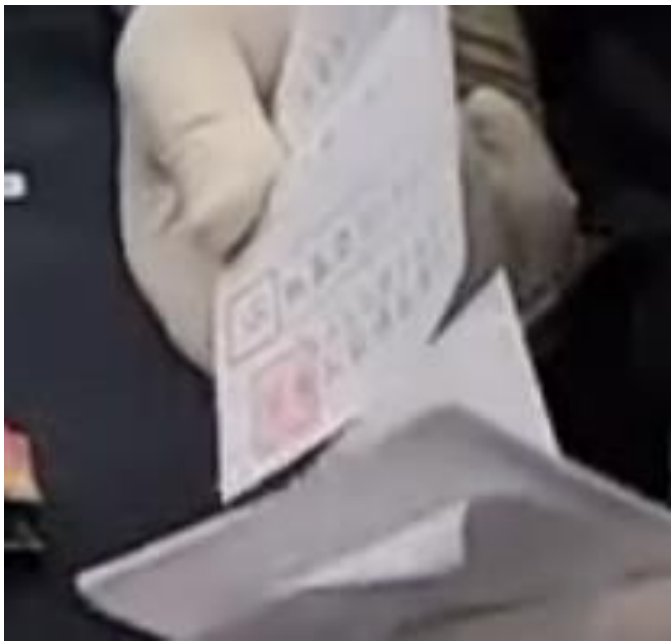
▶ 조작자들이 투표지를 인쇄에서 재단한 후에 각각의 투표지 상단부에 접착물질을 붙여 영수증 책(포스트 잇)처럼 만들어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바꿔치기를 하다가 두 장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검증 : 붙어 있는 앞 장은 민주당 김영배 후보표, 뒷장은 통합당 후보인 한상학의 표. 조작자가 영수증 책처럼 투표지를 만들었다가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면 두 장 모두 민주당 김영배의 표로 만들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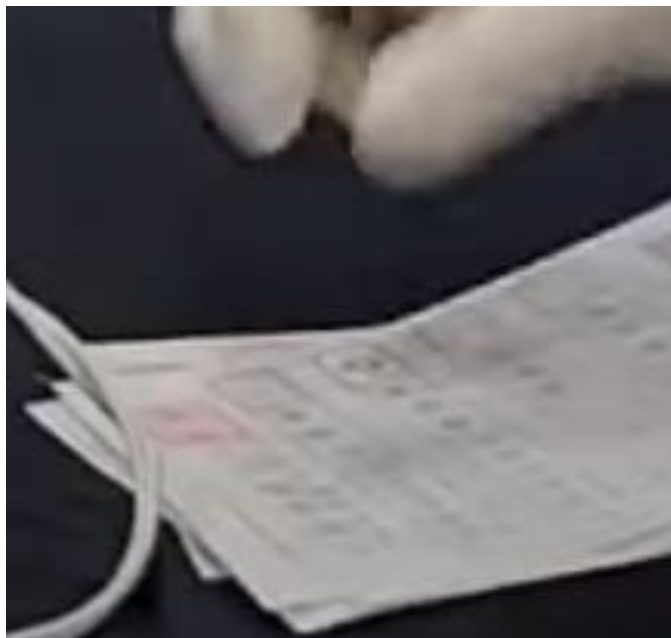
▶ 개표원이 민주당 후보 표 뒤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일부러 붙여, 개표분류기가 뒷장의 미래통합당 표를 인식 못하게 하여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줄이려 했음.

검증 : 일단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개표원들을 매수해 조작에 참여시켜야 함. 또,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인수와 투표지수가 불일치. 따라서 선관위와 여야 선관위원 및 참관인들은 그 원인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붙어 있는 투표지를 찾아내게 되어 조작이 성공할 수 없음.

의혹제기 동영상 캡처 화면



← 1번에
투표



← 2번에
투표

28-1. 붙어 있는 투표지의 비밀

- <https://www.youtube.com/watch?v=qSlujnFvENY&feature=youtu.be> (출처 : 가로세로연구소)
- <https://youtu.be/qSlujnFvENY> (6분 5초~6분 20초)
- 붙어 있는 투표지는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의 표.

29. 뽀뽀한 관외지역구 투표용지

투표지는 접어서 구권처럼 뽀뽀하지 않아야 하는데 관외투표 민주당 후보 표는 신권처럼 뽀뽀한 것은 유령표를 넣은 증거라고 주장



왼쪽:미래통합당 심장수 후보 표, 아랫쪽: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 표

29-1. 검증 : 관외사전 지역구 투표지는 접혀 있지 않고 뽀뽀해야 정상

▶ 비례대표 투표지는 48cm가 되어 한 번 이상을 접지 않으면 봉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접혀 있어야 하지만, 지역구 투표용지는 접어서 봉투에 넣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접지 않고 넣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관외투표 지역구 투표지를 봉투를 개봉해 꺼내면 신권처럼 접히지 않고 뽀뽀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

▶ 관외투표 비례대표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다면 그건 조작을 의심해야 하지만, 관외투표 지역구 투표지가 접히지 않고 뽀뽀한 것을 두고 조작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

▶ 위의 사진을 보면 남양주율의 민주당 후보(조응천)와 미래통합당 후보(심장수)가 득표한 관외사전 투표용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심장수 후보의 표도 신권처럼 뽀뽀함. 미래통합당이 조작?



접하지 않은 뽕뽕한 송파구갑 투표용지



↑ 접지 않고 투표하는 사람들↑
↓ 접하지 않은 관외 지역투표용지를 꺼내는 장면 링크↓
<https://youtu.be/bfCr3Sr10KA?t=64>

30. 한 쪽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사전투표 투표지 중에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많으며 이는 유령표를 넣은 흔적이라고 주장



30-1. 검증 : 여백의 폭이 다른 다양한 형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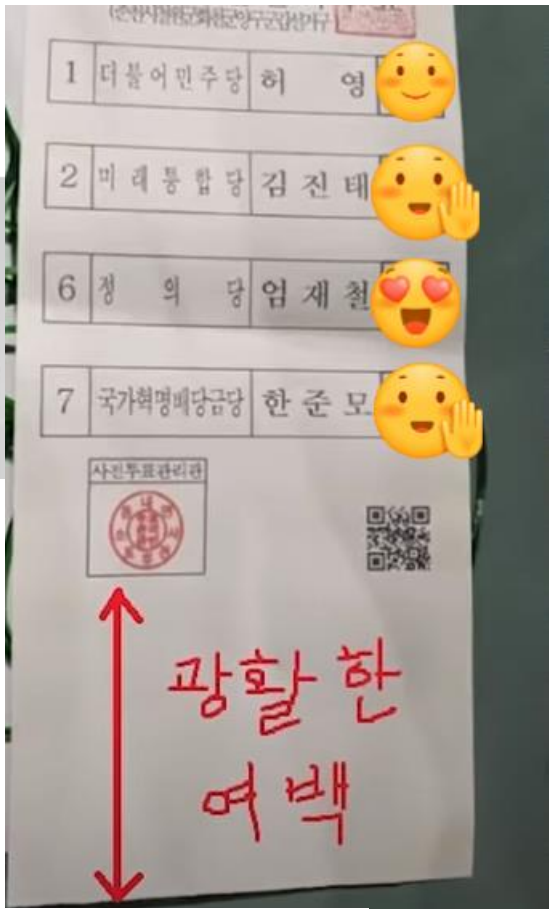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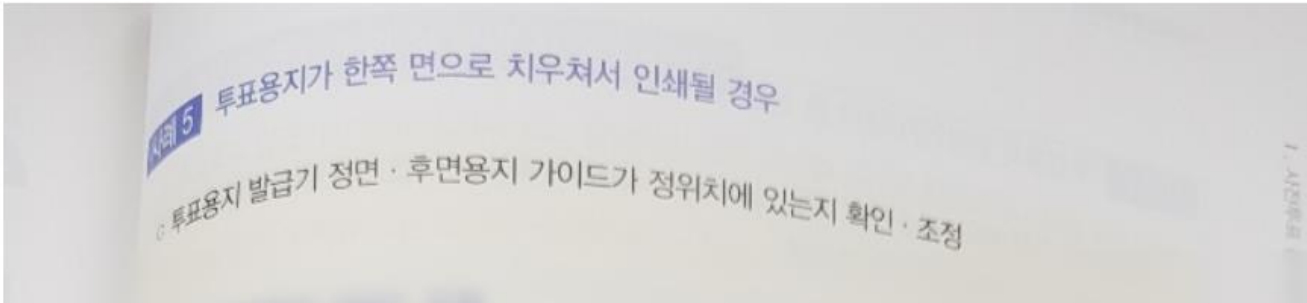
- ▶ 프린터의 용지 공급함에 복사지를 넣을 때, 한 쪽으로 쏠리게 넣으면 중앙에 맞춰 인쇄되어 나오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와 유사.
- ▶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발행할 때 프린터에는 Roll 형태의 용지를 걸게 되고, Roll이 우측으로 쏠리게 급지가 되면 좌측의 여백이 줄어들게 인쇄되어 나옴.
- ▶ 이건 조작의 증거도 아닐 뿐아니라 관리 부실도 아닌 정상적인 것.
- ▶ 아래 링크한 동영상을 보면 개표분류기 모니터에 나타난 좌우 여백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투표지를 볼 수 있고, 민주당 후보 표 뿐 아니라 미통당 후보 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920335&rk=96k&exception_mode=recommend&page=2

- ▶ 또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면 QR코드를 인쇄할 수 없음. QR코드는 매 투표지마다 다르며, 인쇄소에서는 투표지마다 QR코드를 다르게 인쇄 불가능.

간혹 가다 프린터기의 이상으로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톨용지를 정확히 꽂지 않고 약간 비뚤게 넣어서 생긴 문제이구요.
그러나 이런 경우 무효표가 아니라 유효표로 인정되구요.

이와 관련하여 사전투표매뉴얼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 발생 빈번

를 용지의 마지막 부분(다 쓸 경우)으로 다가갈 수록
동그랗게 말린 부분의 구심력(?)이 세져 아래의 여백이 길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표 역시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로 처리하며
분류기에서 재분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심사집계부를 통해 확인 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투표용지 프린터+롤지

31. 삼립빵 박스 사건

SPC삼립 CI 변천사



타원형에 한문과 한글을 사용



S(삼립), F(Food), L(삼립), O(빵)를 조합함



1980.06.01 ~
소비자와 기업의 마음을 상징하는
2개의 하트가 겹쳐진 모양



1995.01 ~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이미지와
종합식품회사 부각



1997.03.14 ~



2005.07 ~
고객과의 신뢰와 변화, 혁신의지
부각



2013.10 ~
'하모니(Harmony: 조화, 화합)'



2017.09 ~
종합식품회사 도약 의지



안산 선관위 보관 창고의 투표지 보관상자



21대 총선 도봉구 투표지 보관상자

31-1. 검증

- ▶ 개표 후의 투표지에 대한 보관 박스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없는 사항으로 삼립빵 박스에 담던, 사과 박스에 담던 불법 아님. **선관위가 투표지를 담은 박스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은 불찰.**
- ▶ 삼립빵 박스에 담긴 투표지가 마침 관내,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개함된 사전투표 투표지라는 것에 의혹을 제기.
- ▶ 안산과 도봉구 등 대부분 개표소에서 당일투표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개표를 한 후에 마지막에 관내,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
- ▶ 따라서 먼저 개표된 당일투표 투표지를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지 보관 박스에 담게 되고, 관내,관외사전투표함의 투표지는 나중에 개함, 개표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박스가 모자라 삼립빵 박스에 담게 되었을 뿐.
만약 관내,관외사전투표함이 먼저 개함, 개표되었더라면 이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준비한 박스에 담겨졌을 것.
- ▶ 상자운반을 위한 **손잡이 구멍도 운반이후에는 봉인했어야 함.**

32. 무효표가 1번표로 분류되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 며 이것은 개표분류기를 조작에 일어난 것으로 의심.

기표가 안 된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민주당 후보(1번)표로 분류되는 동영상
실제 존재.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tHsN3wjeh0&feature=youtu.be>

그런데 이렇게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되어 1번이나 2번으로 분류되는 것은 흔하게 있음.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선관위 홈페이지)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5985.do?menuNo=200618>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고,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되어 있어도 유효 처리가 됨. 위 동영상은 기표란과 후보 이름 일부만 보이는 것으로 후보 이름 전부와 기호는 보이지 않음. 무효표로 보이는 것이 유효 처리되는 것은 후보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된 경우인 것. 통계적으로 저런 식의 유효표가 전체의 약 5%

선관위에선 실제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기호나 이름에 기표된 표도 유효 처리되는 시연을 보임.

33. 선관위가 투표소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선관위가 지시했다며 선관위가 조작에 가담한 것처럼 주장.

<사전투표소 CCTV는 왜 신문지로 다 가렸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bypDtPdjs8&feature=youtu.be>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됨.

투표장에 CCTV가 없는데 선관위가 왜 신문지로 CCTV를 가리라는 지시를 알 수 있나?

투표장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막으라는 지시는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68조에는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는 많아도

투표 참관인이 투표장의 투표 상황을 찍어 올린 것은 없음.

단, 언론사에서 취재차 찍은 투표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은 예외.

투표 참관인이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61조 12항에 적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뿐.

제181조에는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 **투표소 촬영은 X, 개표장 촬영은 O.**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첨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투표참관)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34. 관외사전투표 봉투가 순간 이동?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까지 16.3km를 5분만에 이동(4월 11일 22시 01분 -> 22시 06분)하는 것은 시내에서 195km로 달렸다?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HOME > 원클릭 배송조회 >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등기 및 택배 우편물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마스킹(*)해제조회

① 제한표시에대한 근거

등기번호	보내는분/발송날짜	받는분/수신날짜	취급구분	배달결과
1068811144300	선*우편물 2020.04.11	연*군선거관리위원회 2020.04.12		배달완료

배송 진행상황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0.04.11	20:20	서울서초우체국	접수
2020.04.11	22:01	서울서초우체국	발송
2020.04.11	22:06	동서울우편집중국	도착
2020.04.12	09:38	의정부우편집중국	발송
2020.04.12	10:47	연천우체국	도착

34-1. 검증 :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우편집증국으로

- ▶ 실제 우편물은 **서초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우편집증국으로 이송**되었지만, 서초 투표소의 관할 우체국인 서초우체국을 경유한 것으로 전산 처리.
- ▶ 투표용지의 우편운송 : 우편물은 관할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관할 우편집증국으로 이송, 우편집증국에서 분류되어 받는 사람의 관할 우편집증국으로 다시 이송, 해당 우체국으로 다시 전달되어 우편 배달부가 받는 사람에게 배송함.
- ▶ 동서울우편집증국 관할 지역 : 서울 중구, 종로, 용산, 성북[소포], 동대문,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성동, 광진, 남양주 조안면, 하남(위례신도시 제외), 가평, 양평.
- ▶ 의정부우편집증국 관할 지역 : 서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경기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조안면 제외), 강원 철원.
- ▶ 동서울우편집증국에서 4월 12일 12시33분 발송하여 의정부우편집증국에 12시 34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이중 등록임.
이중 등록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조작과는 무관.

35.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하는 개표분류기?

종로구의 개표 동영상을 보면, 2번 황교안 기표 투표지가 재확인 대상 칸으로 다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통합당 후보표를 적게 만들려고 분류기를 조작한 증거.

https://www.youtube.com/watch?v=raGokqlrQ04&fbclid=IwAR2ErC5oizNXI1pSoGtIDLu9IhV6VZlhTqbl2ynUyi_AXGg8mdLyXHITJSs (박주현 변호사 TV)

- ▶ 개표분류기는 유,무효표를 가늠하기 힘들 경우, 재분류함에 표를 분류하게 되는데, 위 동영상을 보면 이낙연과 황교안의 표로 보이는 표들이 재분류함으로 분류됨.
- ▶ 하지만, 저렇게 재분류함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 진영의 추천 선관위원들의 입회하에 합의를 통해 양 후보의 칸 사이 중간에 기표가 되지 않은 이상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해당 후보 표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
- ▶ 상대적으로 황교안 표로 보이는 표들이 재분류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개표분류기가 황교안 후보에게 불리하게 셋팅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2번 후보로 1, 3번 중간에 기표란이 있고, 60대 이상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아 이들이 기표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 ▶ 김어준이 말했던 K값(미분류표 비율)이 1.5가 나왔던 것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 기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분류된 박근혜 후보 표가 재분류된 문재인 후보표보다 1.5배 많았기 때문.

36. 투표지교부수, 투표지수 차이(종로 관외사전 개표상황표)

종로 관외사전 개표상황표, 선거인수 2,453 중 투표용지 교부수 2,453, 투표수 2,451, 투표용지 2표는 어디로 갔을까?

- ▶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함 후의 투표지 수가 차이 나고, 비례대표 투표지 수와 지역구 투표지 수도 차이가 나는 일은 발생. 종로구의 투표소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구 투표소에서 공히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 이런 일은 이번 총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선거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
- ▶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외 투표자가 관외투표용 봉투에 넣지 않은채, 관내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경우도 있고, 관외투표지를 담은 봉투가 잘못 우송되어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는 투표지 수가 남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투표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적게 나옴.
또, 관외투표자가 지역구 투표지는 봉투에 담아 관외투표함에 넣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관내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있음. 심지어 투표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른 후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갖고 나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발생. (이건 위법)
- ▶ 이처럼 투개표 과정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 교부수, 지역구 투표지 수, 비례대표 투표지 수가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김.

37. 선관위가 500만명 개인 정보 수집 했다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명에 대해 경력·학력·납세·전과·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에 이를 활용해서 '유령 투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에 유령표를 만들어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번 사전투표율이 26.7%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것도 선관위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들어 민주당 후보 표로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역	실시사유
선거관리시스템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 약 500만명	- 개인정보 100만 이상 처리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통합명부시스템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3자리, 손도창 또는 서명, 주소 -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 약 4,200만명(전국기준)	- 개인정보 100만 이상 처리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37-1. 검증

- ▶ 500만명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중앙 선관위가 서버 입찰 제안서에 서버의 관리 능력이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발단.
- ▶ 중앙 선관위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매 선거마다 이런 투표관리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할 능력이 필요했던 것.
즉,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전투표와는 연관이 없고,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개인 정보.
- ▶ 투표 관리 인력들의 정보가 시스템에 누적되어 500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든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
- ▶ 당일투표(본투표) 현장에는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착각이나 실수로 사전투표한 것으로 오인되는 해프닝이 가끔씩 벌어지곤 함.
4.15 총선 당일투표 현장 곳곳에서 저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을 것이고, 과거 선거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님.

38.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관련

인천(연수율)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인명부 보전 신청을 했는데 인천(연수율)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걸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될까봐 내 놓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 ▶ 인천(연수율) 선관위는 증거보전 집행 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
- ▶ 민경욱 후보는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과 비례대표 선거인명부도 요구했는데, 인천(연수율) 선관위로부터 거절당하자, 이것 역시 문제를 삼았음.
- ▶ **민경욱은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지에 대해 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보전 신청할 권리가 없음.**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과 비례대표 선거인명부를 요청하려면 비례대표를 공천한 미래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신청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함.

39. 성남 도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 동별 표시는 조작을 은폐하려는 시도

도의원 선거는 사전투표 결과를 동별로 표시하지 않고 선거구로 통합에 표시하는 것은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

- ▶ 공직선거법 제217조에는 동시 선거를 할 경우, 투표록과 개표록을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

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진행된 전국의 보궐 지방선거에서 성남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 뿐아니라 다른 보궐 지방선거도 관내사전투표는 선거구별 집계만 했음.
- ▶ 예전에 치러진 동시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구별 관내사전투표 집계만 했음.

40.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투표수와 국회의원 투표수가 다른 것은 조작의 증거

- ▶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투표수와 국회의원 투표수가 다른 것은 정상적인 현상임.
- ▶ 성남제7선거구의 도의원 관내사전 선거인수 21,849, 투표수 21,847이고, 해당 선거구(제7선거구)의 국회의원 관내사전 선거인수는 21,434, 투표수 21,433.
- ▶ 도의원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국회의원 선거인수와 투표수보다 많은 이유는 도의원 선거권자 자격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자 자격이 다르기 때문.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1. 선관위, 투표율을 선행해서 발표?

2020. 4. 15. 투표일 날 10시 45분에 이미 11시 투표율을 공개한 선관위.
아래가 노트북 시계 10:45의 동대문, 중랑, 강북구의 11시 결과. 그 아래가 11시 선거결과 공표한 선관위 숫자기록과 동일함! 11시의 실제 투표 %가 아니라 숫자를 10시 45분에 정확히 맞춤. 이걸 조작의 증거.

[서울특별시] [11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준] 시간대별 투표현황은 해당시간의 '10분 간'에 집계된 자료입니다.
선거인수의 (우편 + 관내사전투표) : 사전투표자수-(거소+선상+재외투표신고인수), 투표자수의 (우편 + 관내사전투표) : (관외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접수수)+관내사전투표자수

구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자수(검정)			투표율 (%)	집계상황 (완료/전체)
	선거일투표	우편 + 관내사전 투표(신고인수)	계	선거일투표	우편 + 관내사전 투표(접수수)	계		
합계	8,092,256	2,384,988	8,477,244	399,280	0	399,280	4.7%	8/25
종로구	86,441	48,548	134,989	0	0	0	0.0%	0/1
중구	130,283	53,932	184,215	0	0	0	0.0%	0/1
용산구	143,134	60,749	203,883	0	0	0	0.0%	0/1
성동구	135,403	57,073	192,476	0	0	0	0.0%	0/1
광진구	220,943	88,504	309,447	0	0	0	0.0%	0/1
동대문구	226,107	80,253	306,360	48,494	0	48,494	15.2%	1/1
중랑구	259,800	91,354	351,154	48,707	0	48,707	13.9%	1/1
성북구	273,992	109,569	383,561	0	0	0	0.0%	0/1
강북구	207,117	71,793	278,910	40,061	0	40,061	14.4%	1/1
도봉구	213,978	77,538	291,516	0	0	0	0.0%	0/1
노원구	332,222	122,276	454,498	0	0	0	0.0%	0/1



41. 검증

- ▶ 선관위가 10시 45분에 발표한 동대문, 중랑, 강북구의 투표율이 11시의 결과와 동일하다며, 이것은 선관위가 이미 사전에 투표율을 조작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 ▶ 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투표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투표결과를 중앙선관위는 그때 그때 업데이트해서 선관위 홈페이지 올림.
- ▶ 동대문, 중랑구, 강북구의 투표소가 10시 45분에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고, 11시까지 다음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10시 45분의 투표율이 그대로 11시에 뜨게 됨.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걸 보고 선관위가 10시 45분에 이미 11시의 투표율을 미리 알고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4월 15일 11시 현재 전국의 투표율을 보면 지역별로 제각각.
- ▶ 전국 지역의 투표율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는 이유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결과를 같은 시간에 동시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

42. 중국인 개표사무원은 중국개입의 증거

은평구에 개표사무원으로 중국 국적 중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작을 위한 인력 투입 의혹. 개표분류기의 통신장비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고 중국이 한국의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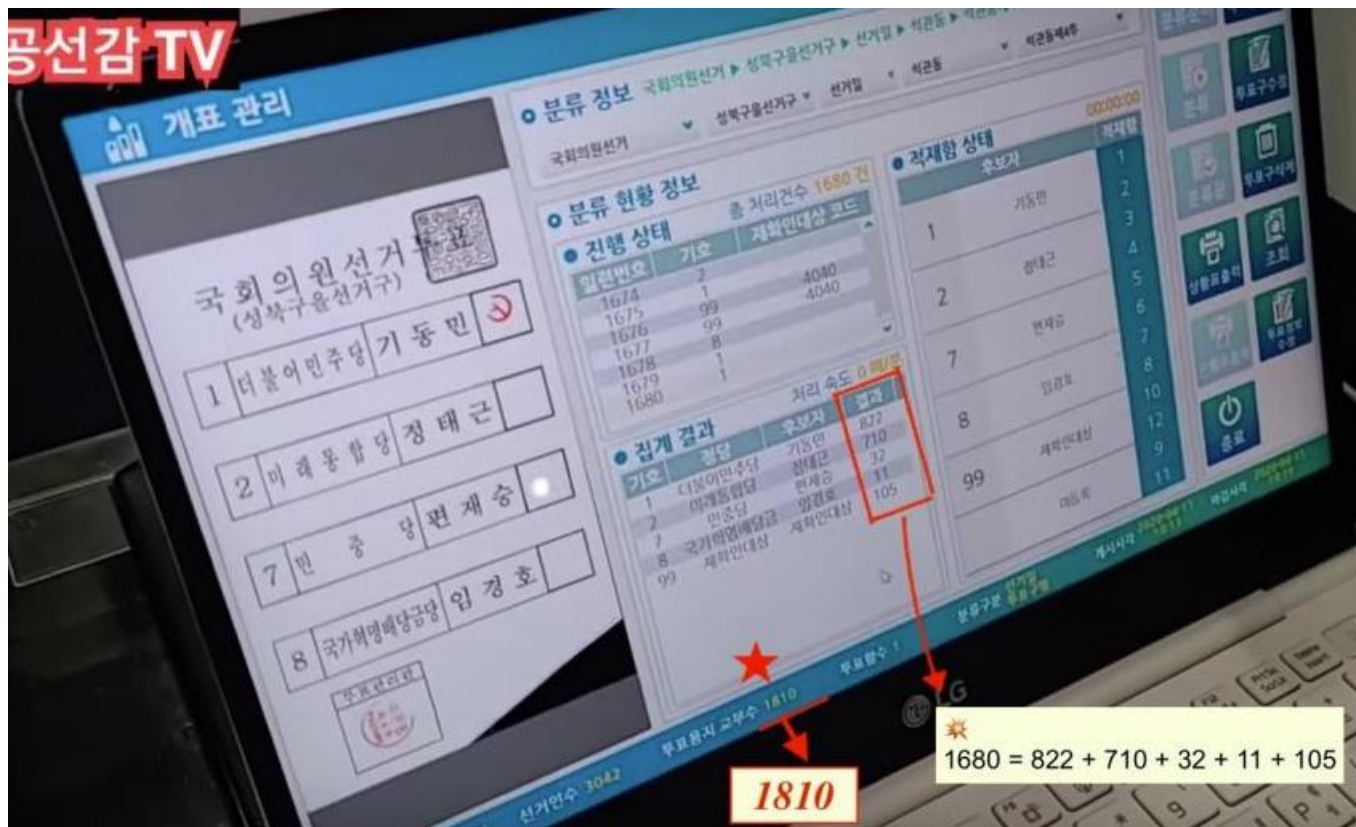
선관위의 해명 :

- ▶은평구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
-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으로 1명은 영주권자(중국 국적)이며,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였습니다.
-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

43. 개표분류기 모니터에 나타난 투표지교부수와 투표지수 차이는 조작의 증거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분류기의 모니터에 투표지교부수와 카운트한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게 나타난 것을 두고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

성북구 개표장의 한 개표분류기가 하나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분류를 끝내고 모니터에 각 후보별 득표수를 표시했는데 투표지교부수는 1,810표였는데 각 후보별 득표수 합은 1,680으로 나타나 130표(장)이 빈 것으로 나타남.



43. 검증

- ▶ 투표지교부수와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한 미래통합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개표사무원은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다시 모두 개표분류기에 재투입하여 확인.

-. 투표지 교부수 1810표

	1차 결과	2차 결과	증감
1번(민주당 김영배)	822	885	63
2번(통합당 한상학)	710	759	49
7번	32	34	2
8번	11	12	1
재확인	105	120	15
합계	1,680	1,810	130

- ▶ 투표지수가 1차 1,680 이었는데 2차에서는 1,810으로 130 증가.
- ▶ 후보별 득표수도 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총 투표지수는 투표지 교부수와 일치. 130장의 투표지가 개표분류기에 다 투입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였지, **특정 후보 득표를 고의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누락한 정황은 없었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수 심사부로 넘김.

44.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사무총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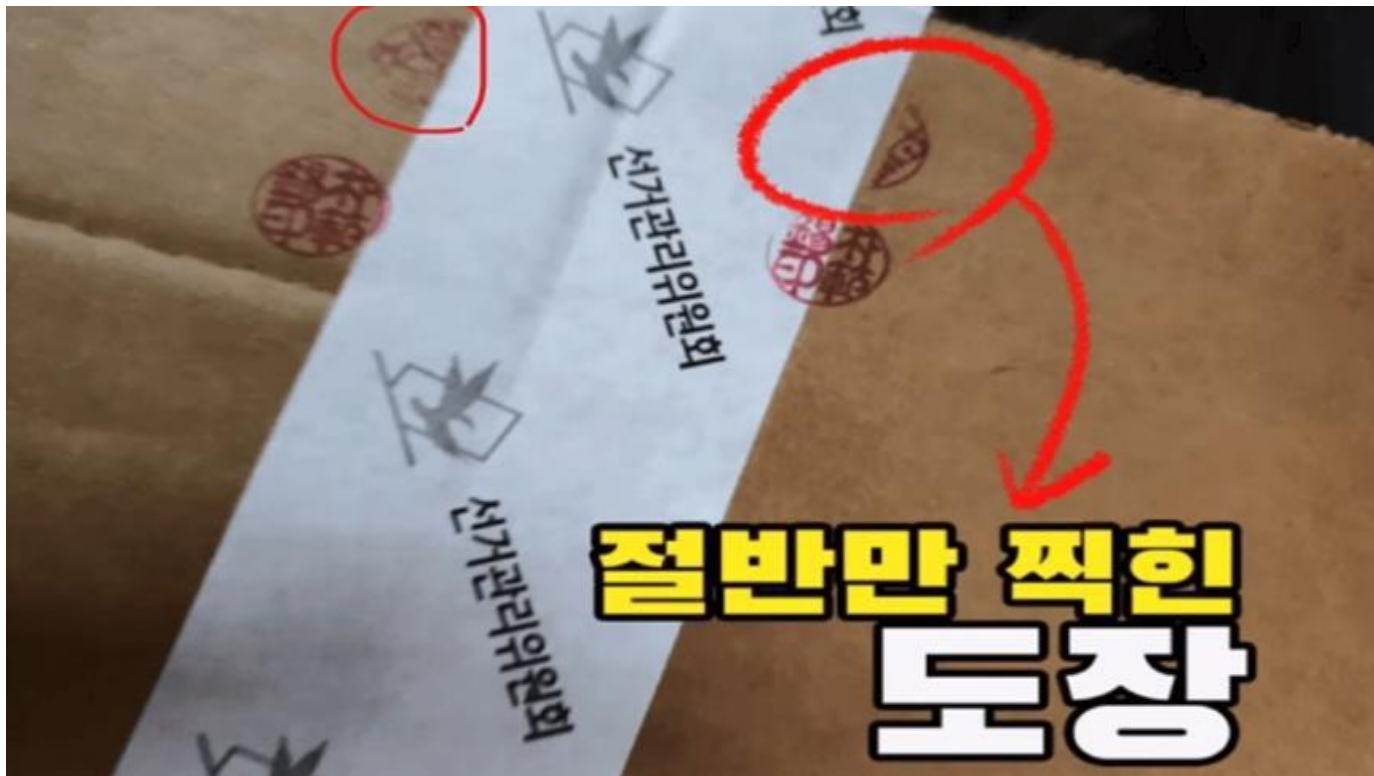
- ▶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지에 선관위원장 직인 대신 선관위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혔다 하여도 불법이 아님.
- ▶ 선관위 사무국장 직인이라 하여 보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님.
- ▶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를 보면, 투표지는 포장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보관상자의 테이프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 선관위 위원장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시켜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면 문제 없음.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45.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안산시단원구선거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투표지를 바꾼 후 다시 봉인했다는 주장

- ▶ 개표 당일 개표소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발생한 투표구의 투표지수를 재확인하거나, 투표지가 선거별로 잘못 구분·포장된 경우 재구분·포장을 위해 이미 봉인된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확인한 후 재봉인함.



46. 지역구 투표지 보관 상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

-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보관 상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온 것은 관리상의 부실이지 조작의 증거라고 할 수 없음.
- ▶ 저건 선관위 직원이나 개표사무 보조원의 실수.
- ▶ 보관 상자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담고, 실무자가 착각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라고 오기를 한 것. 과실과 고의를 구분해야.

47. 기권표가 마이너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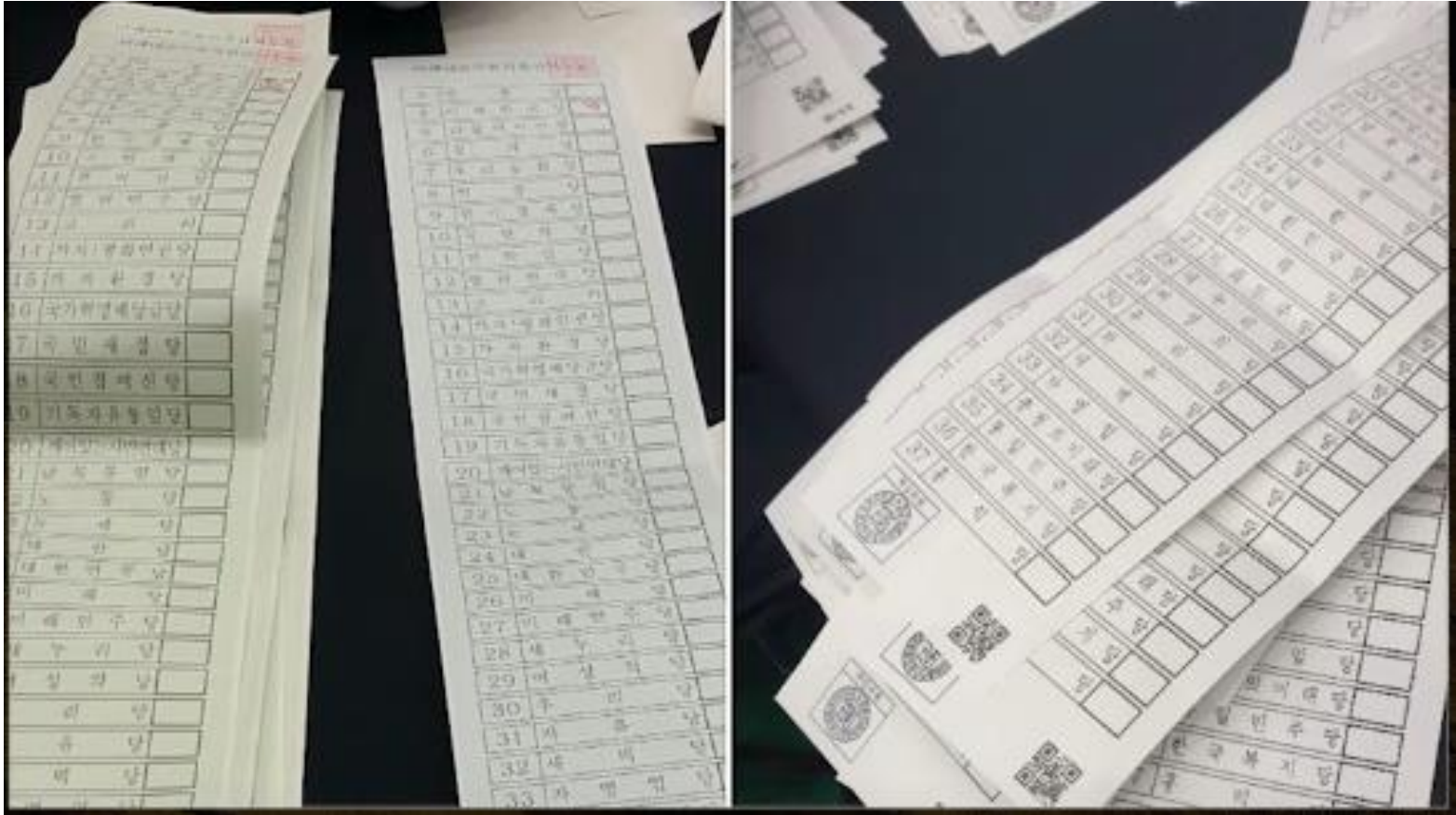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결과 조작이라고 주장

- ▶ 지역구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빈번하게 차이가 발생.
-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발생.
- ▶ 선거인의 이런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음.

투표수(투표지)가 많은 사례

진=전주시선관위 제공

48.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복사된 투표용지



출처 : 공병호TV - 국민 앞에 우선 답해야 할 23가지

48-1. 복사 투표용지 주장에 대한 검증

“경기도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

-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급.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색상은 연두색으로, 선거일 투표용지는 색지(연두색)에 인쇄하나 사전투표용지는 흰색용지에 컬러 인쇄방식으로 색도를 구현.
- ▶ 다만, 사전투표용지 발급수량이 많아 투표용지 발급기 내부 노즐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 투표용지 색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어
- ▶ **복사한 위조투표지라며 제시한 흰색의 투표용지는 ‘책임위원’ 직인이 날인된 재외선거투표용지로 흑백으로 인쇄.**
- ▶ 투표용지는 투표방식(선거일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에 따라 인쇄방법이 다른 것일 뿐 투표용지를 복사하거나 위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49.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인 수 차이

**구리시 선거인수가 지역구(168,689)과 비례대표(168,786)가 다름.
같은 지역에 있는 선거인수가 지역과 비례가 다를 수 있는가?**

-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이 동일하지 않음.
- ▶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회의원 선거권 관련한 부분

<관련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5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인정한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 숫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례대표 투표 가능

50. 개표 후 투표지 보관 박스의 손잡이 구멍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지 보관 박스 양 측면에는 손잡이용 구멍이 뚫려 있음. 이 구멍을 테이프로 밀봉해야 하는데 구멍이 뚫린 채로 둔 것은 구멍을 통해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 구멍에 테이프로 밀봉을 해야 한다면 애초에 손잡이용 구멍을 뚫지 않고 제작했어야. 운반의 편리를 위해 구멍을 뚫어 놓고는 테이프로 밀봉을 해버릴 것이면 왜 구멍을 뚫겠는가?
- ▶ 손잡이 구멍을 통해 투표지를 꺼내고 다시 넣는 것은 매우 힘들.(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100장 단위로 투표지가 묶여 있는데다 투표지의 폭이 운동장 트랙 형태의 구멍의 폭보다 길어 쉽게 빼기 힘들게 되어 있음.
- ▶ 저런 식의 선관위 제작 보관 박스는 예전부터 써 왔던 것이고 예전에도 손잡이 구멍에는 밀봉을 하지 않았음.
- ▶ 개표 후의 투표지 보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 개표과정에서 이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하는 일은 상상을 하지 못해 저런 식의 안이한 보관을 했다고 보여짐. **운반 후 손잡이 구멍도 테이프로 밀봉하도록 선관위 규정을 보강해야 할 필요있음**

50-1. 사진



51. 선관위 홈페이지의 미통당 후보 득표수 셀이 두 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별 각 후보별 득표수를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 확인해 보면, 득표수 셀이 두 칸인 경우가 있음. 선관위가 조작하기 위해 만든 칸으로 의심.

경남 양산갑(김두관:나동연, 나동연 두 칸), 부산 남구을(박재호:이언주, 박재호), 서울 광진을(고민정:오세훈, 오세훈),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김소연, 김소연) 등

E	F	G	H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미래통합당 박정하	우리공화당 이강범	국가혁명배당금 당 정상균	
45,224	38,299	473	489	
125	74	4	3	
5,123	2,699	34	54	
49	16	2	0	
6	3	0	0	
3,910	3,489	53	43	
1,712	1,073	6	9	
827	1,178	16	16	

E	F	G	H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미래통합당 나동연	정의당 권현우	
1,238	44,218	42,695	2
316	118	140	
7,362	4,008	2,841	
82	61	19	
3	3	0	

E	F	G	H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전수희	정의당 정혜연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균
1,200	70,387	53,107	5,465
234	130	68	15
2,777	7,648	4,202	641

51-1. 검증

- ▶ 의미 없음, 확인해 보면 실제 그 칸에는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
- ▶ 20대 총선의 해당 지역구를 찾아보면 똑같이 해당 구간에 해당 후보의 득표수 셀은 두 칸을 차지.
- ▶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1번, 민주당 후보가 2번이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번, 자유한국당 후보가 2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4곳 중 1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2칸, 3곳은 민주당 후보가 두 칸을 차지.
- ▶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사용한 엑셀 양식을 그대로 21대 총선에 사용했을 뿐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52.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

- ▶ 선거기간 동안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평상 시 보다 40배~5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주센터 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전투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 ▶ 그러나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데이터도 주센터에 저장된 동일한 내용이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 보조적으로 저장되므로 임차서버를 보존할 실익이 없음.
- ▶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반납.

53.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에 개표결과를 조작

- ▶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음.
- ▶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고,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
- ▶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첨부하고 있고, 개표참관인과 언론에도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은 낮음.

54.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을 통해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은 입주대상이 되지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음.
- ▶ 광주정부통합센터 보안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따라 입주하지 않은 것임.

55.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 100%에 거의 근접

- ▶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기술지원 사업은 상용 전자제품이 아닌 선거라는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선거장비의 부품 조달 등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하였음.
- ▶ 그 외 10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제21대 총선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은 2회 유찰로 인해 최종 수의계약 한 것이며, 투표지 심사계수기사업은 2개 업체가 응찰하였음에도 99.899%의 투찰률이 나온 것은 신규 제작 장비로 예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달청에서 비예가* 산정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

*비예가 : 예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

56. 선관위가 전용선이 아닌 일반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했다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이번 총선에 업무용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

- ▶ 선관위 해명 :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전용선(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운영 하고 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전용선 구축 사업은 2015년 KT와 체결한 장기 계약(2015.12.23 ~ 2020.12.31.)에 의해서 회선을 사용.
-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와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선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절대 혼용되지 않으며, 폐쇄. 전용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57.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

- ▶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 제21대 국선 임차 사업자인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하였으나,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제21대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음.

59. 개표분류기에 무선 랜카드 설치로 외부 전송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고, 운용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를 외부로 전송

- ▶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선거의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면 광학센서가 투표지이미지를 처리한 후 운용장치(노트북)에 이미지를 전달하고, 운영프로그램에서는 2차원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여 선거별·선거구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총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음.
- ▶ 참고로 18년형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거되어 우리 위원회에 납품되었으며, 14년형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품 납품 후 직접 탈거하였음.
- ▶ 투표지분류기 프린터(엡손, WF-100 모델)는 제조사에 무선랜카드 탈거를 요청하였으나 프린터 무선랜카드가 착탈형이 아닌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거하지 못하고 프린터의 기본환경설정(BIOS : 장착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에서 비활성화하여 통신이 되지 않도록 운영.

58-1. 선관위의 분류기 공개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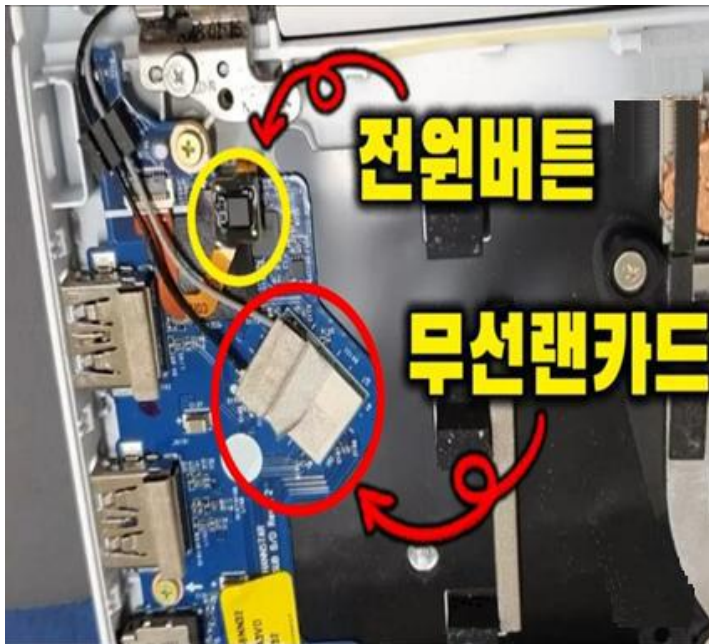


2014년형
랜카드有
투입구1개



2018년형
랜카드 無
투입구2개

58-2. 자료사진



59. 부여군 투표지분류시 후보자 혼입 발생

투표지분류기로 부여군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시 1번 박수연 후보가 2번 정진석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게 나왔으나 분류기 재부팅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 비해 11표 정도 더 나왔다고 주장

- ▶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중 개표사무원이 착오로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함께 고무밴딩 처리한 사실을 책임사무원이 확인해 투표지분류기로 옥산면 관내사전투표지를 재분류한 사실은 있으나, 투표지분류기를 재부팅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 간 투표지가 혼입된 사실은 없음.

충청일보

[단독]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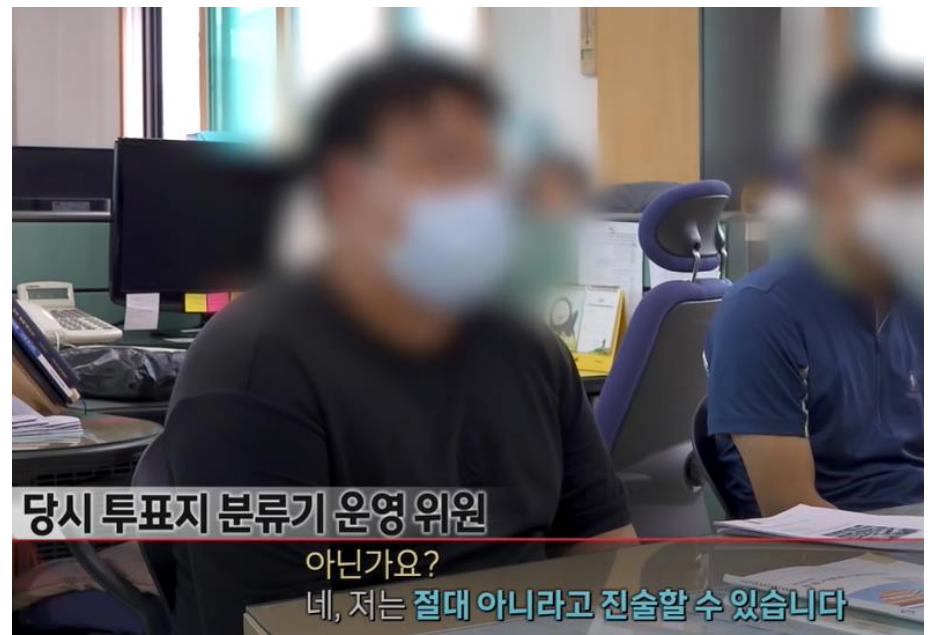
김병현 입력 2020.05.14. 05:02 수정 2020.05.14. 06:56 댓글 359개

부여군 개표 참관인들 "분류기 이상했다"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용지가 섞이기도"
선관위 "1번과 2번 용지가 섞일 일 절대 불가"
재확인용 표가 많은 경우 재검표 많이 한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 정진석 후보 당선



당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 위원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 표가 섞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 위원

아닌가요?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개표 책임 사무원

만일 1번과 2번이 섞여 있다고 그러면 아예 (기기를) 다시 돌렸겠죠
처음부터 근데 그런 상태는 없었어요

세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분류기 적재함 지정도

재판인대상 12	정연상 9번 11	이홍식 7번 8	이홍식 7번 7	정진석 2번 4	정진석 2번 3
10 8번	9 8번	6 3번	5 3번	2 1번	1 1번
김근태	김근태	전흥기	전흥기	박수현	박수현

이렇게 두 개씩 (후보별로) 포켓이 묶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빼는 라인에 사무원분이 이거(11과 12)를 같이 묶었나 봐요

출처 : MBC

60. 부여군 개표소, 1번보다 2번 재확인대상 분류가 많다

부여군 개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 분류결과 사전투표에서 2번 정진석 후보 투표지가 1번 박수연 후보 투표지에 비해 재확인대상으로 많이 분류

- ▶ 투표지에 기표된 기표모양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됨.
- ▶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투표지의 불분명한 기표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의 오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및 무효투표지로 구분함.